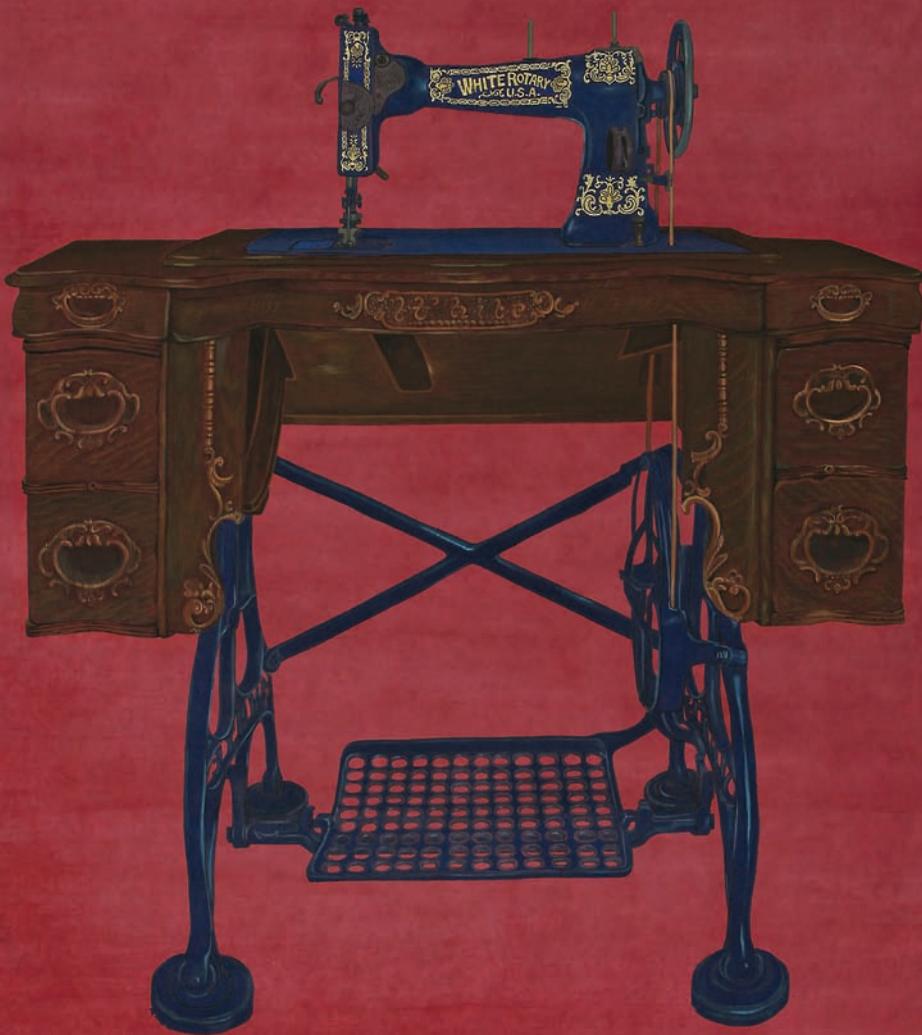


Sokcho Culture Journal 2020 ANNUALLY 제36호

소초문화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물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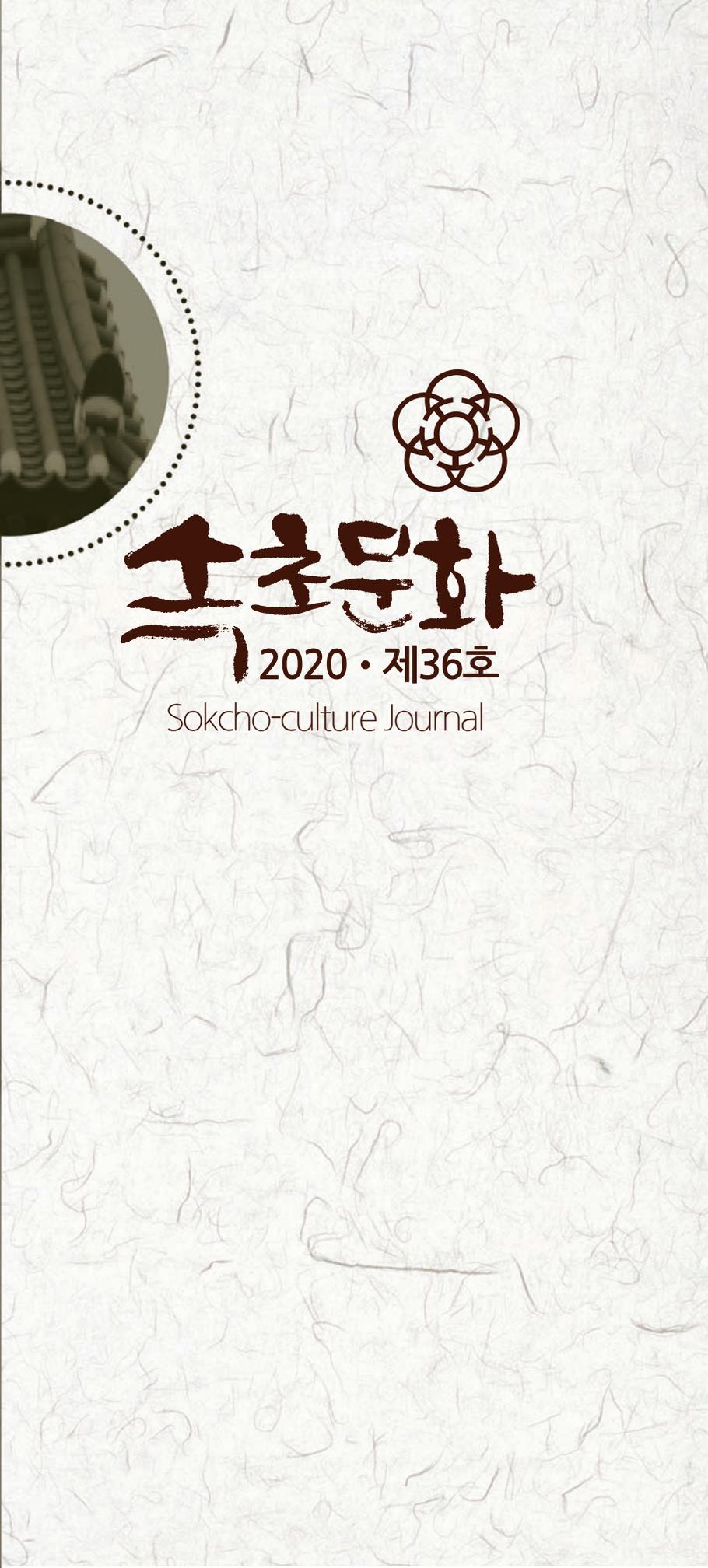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농협은행 속초시지부

지부장 **마상일**
농정단장 **김민철**



소초문화

2020 · 제36호

Sokcho-culture Journal

CONTENTS

- 007 권두시 집 44 - 채재순
- 008 발간사 - 김계남(속초문화원장)
- 010 **지상갤러리**
 - 지자약수 인자약산 - 이덕우
 - 숲이 별에 들다 - 지영희
 - 청호동에서 - 안선영
 - 미시령로 - 이명자
 - 금강대교와 속초항 - 장희경
 - 중앙시장 난전 - 진예원
 - 바다향기로 - 황미화
- 017 **특집1**
- 018 속초 '청대리' 지명 연구 - 김만중
- 039 **특집2**
- 040 속초학 개론 - 양용석
- 054 속초의 지역문화, 그리고 교육 - 박명선
- 059 **속초문화원 365**
- 060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 061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 062 속초문화원 제28기 향토문화학교
- 064 향토사안내서 발간 사업
- 065 2020 속초문화원 공모사업



내 푸른 핏줄기는 어디서 왔을까?
표지작품 **지영희**

속초문화

해풍 김광희



066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위탁관리)

067 문화시민학교 교육강좌 운영사업

068 2020 학교문화예술교육

070 지역관광 아카데미

071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

072 2020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076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079 **향토사연구위원 기고**

080 속초문화재단 출범, ‘문화도시 속초’를 향한 날개를 펴다 - 한정규

085 속초사잇길 걸어보고서 - 이수영

089 “속초를 국제적인 음악도시로 만들고 싶은 소망,
행정 지원 및 인프라 부족 아쉬움” - 양용석(대담 정리)

초대작품

099 표지작품, 내 푸른 핏줄기는 어디서 왔을까? - 지영희

100 겨울비선대에서 - 권정남

104 2020년 속초문화원 임원명단

(우)24821 속초시 변영로 155
TEL.(033) 632-1231
FAX.(033) 632-1241
E-mail. sc2439@kccf.or.kr
펴낸곳 : 속초문화원
발행인 : 김 계 남
편집인 : 양용 석
진 행 : 김 은 중, 정 호 준
발행일 : 2020. 12. 31.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NH 속초농협

진심을 팔다 안심을 살다 

속초농협은 우리지역 향토기업으로써,
농업인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속초농협하나로마트 직원 일동 -



속초농협하나로마트 엑스포점 033)630-1500~1501
중앙시장점 033)633-1508

집 44

은행나무집 앞에 그 나무가 서 있게 된 건
아주 오래 전부터라고 들었지
마을 어디서나 다 보일 만큼 자라기까지
제자리에 서서 양지쪽으로 뻗어나간 시간들
제 안의 물소리 잦아들 무렵이면
나무 꼭대기부터 물들기 시작하는 이파리들

집이라는 말의 안쪽에는 햇살이 있지
집집마다 다른 나무들이 자라고
집 앞에 나무 이름들이 붙지
옆집은 감나무집
반질반질 닳은 마루,
맛있게 익어가는 장독이 있는 뒷집은
대추나무집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랑 같은 상사화
뒤란에 피어나는 외딴집

나무 내력만큼 집의 역사 깊어가고
객지밥 뜨다가 집 쪽으로 목 길게 뻗 마음들이
등을 켜고 있는 해 질 녘
다음엔 어떤 나무가 서 있는 집에 태어날까
이런 생각으로 저물어가는 늦가을



채재순

순수문학회원
설악문우회회원
속초문인협회회원



코로나 일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저물녘을 아쉬워하며 새롭게 맞이할 새해의 가슴벅참이 두려움과 어두움으로 가려지는 코로나 일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문화> 발간사에 앞서 우리의 이웃들과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말씀부터 올려봅니다.

속초문화원 한 해의 다양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며 발간하는 <속초문화>는 지난 84년 첫 창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각종 뜻깊었던 사업과 행사, 그리고 우리 지역 향토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사·연구, 문화·예술 활동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속초문화원의 산 역사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매개체로서의 순기능을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속초문화원의 얼굴이자 자랑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문화원의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고 활동들이 위축되면서 <속초문화>지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 역시 부족함이 많다는 점을 발간사를 통해 양해를 구해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2020 한 해 동안 속초문화원 사업을 진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 사업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 문화학교 강사·수강생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향토사 연구, 도시변천사 연구, 문화학교 진행, 문화콘텐츠 사업, 각 종 공모사업 등에 어려운 환경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분들의 이타적 마음과 전문성 그리고 애정이 모여져서 완성된 이 한 권의 책자가 우리 속초문화원의 방향과 미래를 밝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앞으로의 시간들과 순간들이 많은 분들의 희망이 현실로 바뀌어져 가는 행복하고 즐거운 여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직하며 이에 발간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속초문화원 원장 김 계 남





지자약수 인자약산 • 140×35cm×2

• 화선지에 먹

知者樂水 仁者樂山
(지자약수 인자약산)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해정 이덕우

대한민국 서예대상전 (전국학원연합) 대상,

초대작가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우수상, 초대작가

대한민국서예술대전 초대작가

강원서예대전 우수상, 초대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입선 4회

강원서예대전, 강원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

강원미술대전 서예부문 운영위원장 역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속초미술협회 회장,

해정서예연구원장

속초시 중앙로74, 3층 해정서예연구원

M. 010-5376-1314 E. ldw1314@daum.net



숲이 별에 들다 • 53.0cm x 33.4cm • 순지에 채색 / 2020

지영희

강릉원주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을 수료
2017신사임당미술대전 우수상 외 각종 공모전 13회 수상
개인전 2018 되찾은 언어(강릉 시립미술관, 강원진로교육원갤러리)
단체전 2020 한국가톨릭미술가회창립50주년 기념전 (명동성당갤러리) 외 20회
현재 신사임당미술대전 추천작가, 강원도미술대전 추천작가
한국화동질성회, 강원현대한국화회, 화강회, 영동지구가톨릭미술인회, 해람회, 양지한국화회 회원
E-mail : jeeyoung1112@naver.com





청호동에서 • Watercolor on paper



안선영

어반스케쳐스속초



미시령로 • Watercolor on paper

이명자

어반스케쳐스속초





금강대교와 속초항 • Watercolor on paper



장희경

어반스케쳐스속초



중앙시장 난전 • Watercolor on paper

진예원

어반스케쳐스속초





바다향기로 • Watercolor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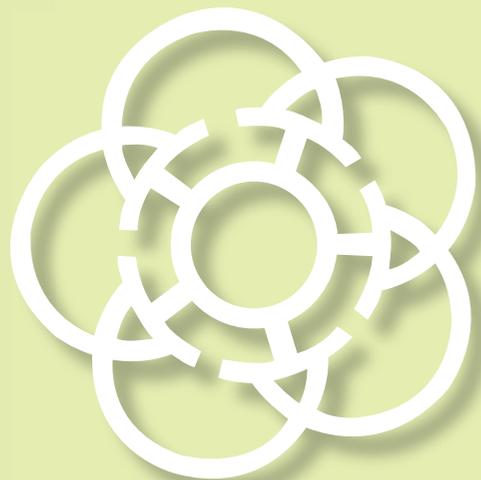
황미화

어반스케쳐스속초



“특집”

- 속초 청대리 지명 연구





속초 '청대리' 지명 연구*

- 언어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지명유래 조사 -

김만중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속초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중) 사진 - 속초시

1. 머리말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땅도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이름도 그렇지만 땅의 이름도 사람이 짓는다.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은 이름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이름도 없는 경우도 많다. 사람의 이름은 필요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데, 땅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요즘에는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처럼 땅의 모습이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땅이름은 알려져 있다시피 신라 경덕왕 때 문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변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식으로 되어 있던 많은 문물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많이 바뀌었다. 이 가운데서도 땅이름은 신라로 통일되기 이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자기 본연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나 이 때에 이르러 한자식으로 변경되었다. 미처 정리되지 않은 땅이름은 지역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말이든 한자어든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전해 오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하여 수많은 변천을 겪었을 것이다.

땅이름이 다시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이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명 개편 필요성은 강압적으로 지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라진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말로 이루어졌거나 마을

* 이 글은 2020년 6월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논문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형성된 이유를 말해주던 땅이름이 마을과 마을을 합치고 식민지배 행정 편의 등을 위해서 바뀌게 된 것이다. 일제 식민강점세력은 우리의 지명을 그냥 바꾼 것이 아니라 몇 차례의 치밀한 조사 과정을 거친 후에 실행하였다. 이렇게 조사한 것을 정리하여 지도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속초는 양양과 고성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1930년대 속초항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속초읍으로 성장하기 이전에는 작은 마을에 불과하였다. 속초의 역사는 곧 양양과 고성의 역사이다. 땅이름도 양양이나 고성의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지역의 중심이 아니다 보니 지명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속초의 지명을 다룬 포괄적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속초문화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¹ 그 외에도 개별적인 연구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²

속초지역 땅이름 유래는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 중 하나가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청대’ 지명이다. 2019년에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여 속초사잇길 걷기 행사가 매달 열렸다.³ 2019년 5월에는 속초사잇길 중 ‘청대산길’을 걸었다.⁴ 사잇길을 걸으면서 같이 걷던 일행 중의 한 분이 질문을 하셨다. 청대산의 가운데 글자인 ‘대’가 산의 의미를 지닌 ‘岱(대)’가 아니라 터의 의미를 지닌 ‘垓(대)’를 쓰는 이유를 물어보신 것이다. ‘청대산’이 소나무가 무성하여 푸른 산으로 불리워졌다는 것에서 유래하였다면 ‘岱(대)’를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언젠가부터 ‘垓(대)’가 쓰이면서 현재와 같은 공식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청대산, 청대리’ 지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지명유래나 전설모음에 간략히 소개된 것이 전부이다. 지금까지 이들 지명에 대한 정체성 및 방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방향제시는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청대’라는 지명의 시대적 변천 과정 및 지명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청대’지명 명칭이 어떠한 성격을 담고 있는지를 개인 문집, 각종 지명집 및 지도 등의 문헌 조사와 연구를 통해 ‘청대’지명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속초의 옛 땅이름』, 속초문화원, 2002.

2. 김명환, 「내고장의 옛 지명」, 『속초문화』제4호, 1988, pp.44~51. 주상훈, 「속초연혁고」, 『속초문화』제5호, 1989, pp.14~28. 주상훈, 「속초 역사의 흐름」, 『속초문화』제14호, 1998, pp.51~55. 한정규, 「강원도 지명유래 : “속초(束草)” 땅이름의 정리」, 『강원민속학』제22권, 강원도민속학회, 2008, pp.101~134. 김만중, 「지명조사의 중요성-속초-양양지역을 중심으로-」, 『속초문화』제25호, 2009, pp.77~89. 김만중, 「문화재지표조사 때의 지명조사-속초-양양지역을 중심으로-」,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편 연구』, 경인문화사, 2010, pp.211~231. 정상철, 「세종-세조실록의 속초포와 산성포의 위치 비정 연구」, 『속초문화』제27호, 2011, pp.64~87. 정상철, 「속초지역의 옛지명과 변천과정-비선대, 외왕치, 조도를 중심으로」, 『속초문화』제29호, 2013, pp.42~58.

3. 속초사잇길은 길을 매개로 하여 도심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잇고 맺으면서 만든 도보여행길이다. 사잇길 걷기 행사는 도심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길을 매개로 하여 그 속에 숨어 있는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인문학적 탐구를 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4. 『전국매일신문』, 2019.05.21., “속초시, 시민 대화합-친목 행사 실시”(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877)

**속초사잇길은 현재 10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길수는 여건 및 현장 상황 등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다.**

2019년 계획	2020년 현재
제1길 영랑호길 영랑교-보광사(중혼탑)-안축시비-범바위-습지공원-화랑도체험장(장천마을-국사봉)-카누경기장-영랑교	제1길 영랑호길 범바위-안축시비-보광사(중혼탑)-영랑교-카누경기장-화랑도체험장-습지공원(장천마을-국사봉)-범바위
제2길 수복길 장사항-영랑교-영랑해변(골목투어)-등대전망대-영금정-동명항-동명동성당-수복탑-관광수산시장-40계단마을(골목길 투어)	제2길 장사-영랑해변길 장사항-사진교-해안길-등대편의점-영랑해안3길68-영금정로3길-등대둘레단-속초등대(나무계단)-보건목욕탕-동현아파트-동명동성당-속초감리교회
제3길 아바이길 속초관광수산시장-갯배-신포마을-설악대교-아트플랫폼갯배-유정충선장동상-아바이마을(청호해변)	제3길 수복길 수복탑-사이렌동네-40계단마을-속초관광수산시장
제4길 속초해변길 속초해변-송림산책로-새마을-외옹치(바다항기로)-대포항방파제-대포항전망대-대포항-설악해맞이공원(설악항)	제4길 아바이마을길 속초관광수산시장-갯배선착장(신포마을)-신포마을해변-설악대교-아트플랫폼갯배-유정충선장동상-청호해변-청호초등학교연벽화마을-옛청호시장-아바이마을주도로아트플랫폼갯배
제5길 청대산길 청대산등산로입구-청대산정상-신라샘-싸리재정상-상도문농로-상도문한옥마을(도문농요전수관)	제5길 속초해변길 속초해변-송림산책로-새마을-외옹치(바다항기로)-대포항전망대
제6길 청초호길 옛속초수협-옛HID-칠성조선소-석봉도자기미술관(청초정)-엑스포공원-오토계류장(이기섭동상)-유람선선착장-코마린요트장-현속초수협	제6길 청대산길 조양동청대산등산로입구-청대산정상-정자-삼림욕장길-정자-청대산등산로입구
제7길 청초천제방길 청초교-청초천제방길-소야벌-돌담카페-과수원길-산소숲길-응골딸기마을-죽육공원-척산온천장산책로	제7길 청초호길 옛속초수협일대-칠성조선소입구-청초정-엑스포상징탑-오토계류장-유람선선착장-현속초수협-설악대교-갯배-옛속초수협일대
제8길 배나무골길 서울연수원숲길-이목리수목원-이목리마을회관-배나무골삼림욕장길-뫼버덩길-숲박물관-국립산악박물관(등산학교)-속초시립박물관	제8길 청초천길 속초광장-청초천제방길-철교-노리교-이목리마을회관-뫼버덩길-숲박물관-국립산악박물관-속초시립박물관
제9길 설악누리길 죽육공원-척산온천휴양촌-설악누리길-자생식물원-부엉이전시관-얼라이브하트-테디베어팜-테라크랩팜-학사평순두부촌-한화호텔&리조트	제9길 설악누리길 죽육공원-설악누리-자생식물원
제10길 대포만세길 중도마을회관-이석범-이국범생가터-중도마을안길-떡발제도로-고개마루-방축길-철독길-대포초등학교-7번국도-옛대포항사무소(민세운동길)	제10길 대포만세운동길 중도마을회관-이석범-이국범생가터-중도마을안길-떡발제도로-나무남재-방축길-철독길-대포초등학교-동해대로-옛대포항사무소골목

2. 본론

1) 행정구역 변화와 청대리 전설

(1) 속초의 행정구역 변화

어업의 발달로 속초항이 급격히 발달하기 전에는 속초는 양양과 고성 경계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불과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속초지역은 도문면과 소천면 2개 면으로 되어 있었

다. 1907년(융희 원년)부터 면에 면장을 두었고, 1913년(대정 2년⁵)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천도문 연합면이 되고 1914년(대정 3년)에 도천면으로 합쳐졌다.⁶ 1925년에는 속초리를 비롯한 11개리를 두었다. 수산업의 발달과 자원 수탈의 목적으로 속초항이 개발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대포리에 있던 주요 기관이 속초리로 이전하였다. 1935년에 우편소, 1936년에 어업조합, 1937년에 면사무소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 왔다. 면의 이름도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속초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발달은 인구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1942년에 속초면은 속초읍으로 승격한다. 행정구역의 분할도 이루어졌다. 읍의 중심지이던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 분구를 하였다. 노리는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로 분할하였다. 11개리가 14개리로 늘어나게 되었다. 속초리의 분구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7개 동리를 관할하게 된 것이다.

8·15 해방이 되면서 속초지역은 38선 이북으로 공산 치하에 들어갔다. 속초읍은 다시 속초면이 되었다. 6·25전쟁이 벌어지고, 1951년 수복이 되고 8월에 군정이 실시되었다. 속초면은 속초읍으로 환원되었으며, 토성면 사진리와 장천리가 일시 편입되었다. 1954년 11월 민정이 실시되면서 사진리와 장천리는 토성면으로 복귀하였고, 부월리(현재 청호동 지역) 일부가 속초리 5구로 획정되었다. 1958년에 속초리 4구를 분할하여 속초리 6구를 신설하였다. 1959년 속초읍의 행정구역은 총 23개 리·구⁸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무렵부터 청대리가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2) 청대산 전설 및 성황당

‘청대리’라는 마을지명은 청대산에서 유래하고 있다. 소나무의 푸르름으로 인하여 청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⁹ 청대산은 이름 그대로 소나무가 많은 산이다. ‘청대산’은 속초 시내와 인접하여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옛부터 지역 주민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속초의 상징성이 깃든 곳이다. 다른 지역도 그러하듯이 청대산은 많은 전설과 설화 등을 품고 있다. 청대리에 전해지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청대산 정상부의 소나무와 관련되어 있다. 예전에 청대산 정상부에는 성황당도 있었다. 문헌에 나타난 청대산과 청대리, 성황당과 관련된 설화 및 전설은 다음과 같다.

5.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옛 문헌으로 본 속초Ⅱ -면세일반-읍세일람-』, 2008, p.6.도천면, 『면세일반』, 1926.번역의 원문으로 삼은 글에는 연호 옆에 작은 글자로 서기연대를 적어 놓았다. 이를 오역하여 대정 2년을 대정 3년으로 번역하였다.

6.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옛 문헌으로 본 속초Ⅱ -면세일반-읍세일람-』, 2008, p.6.도천면, 『면세일반』, 1926.

7. 11개 리는 장항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내물치리, 대포리, 외옹치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이다.

8. 23개 리·구는 속초1리, 속초2리, 속초3리, 속초4리, 속초5리, 속초6리,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부월리, 외옹치리, 대포리, 내물치리, 하도문리, 중도문1리, 중도문2리, 상도문1리, 상도문2리, 장항리이다.

9. 한글학회, 『한국 지명 총람 2(강원편)』, 1967, p.176.

(가) 청대리 소나무¹⁰

○ 옛날에 청대리에 큰 소나무가 있었어. 웅장하고 굵기도 크고 가지가 많은 소나무여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제사도 드리고 가축을 죽여 재물로 바쳤지. 그런데 한 사람이 그날 그분 나쁜 일을 당해 술을 먹고 만취해 그 소나무가 서 있는 길을 가다가 뭔가 앞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도끼로 그 나무를 한번 내려치니 그 나무는 천둥번개와 함께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어. 그 소리에 놀란 그 사람은 도끼를 던져 버리고는 황급히 집으로 달아났는데 그 다음날 그 나무를 벤 사람은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어버리고 한동안 청대리에는 불행이 찾아 왔다고 전해. 그 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불행이 멈추었다고 전하지.

(나) 청대리의 전설¹¹

○ 청대리는 속초에서 조양동에 속해 있으며 청대산(해발 230m)을 끼고 있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다른 마을들과는 달리 남향이 아닌 북향을 하고 있어 아주 특이한 곳이라 할 수 있지요. 원래 청대리라는 이름은 6·25사변 당시에 불렸던 이름이고 지금은 조양동이라고 불려져요. 청대리라는 말은 최근 들어 잘 사용하지 않아요. 청대리에는 보기 드물게 아직도 상례를 치르는데 마을이 그리 크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서로 알고 지내기 때문에 다 같이 슬퍼하고 상을 당한 가족도 위로해 주는 인심 좋은 마을입니다.

(다) 청대산의 전설¹²

○ 3그루의 소나무 전설 : 청대산 정상에 소나무 3그루가 있었다. 3그루는 각자 이목리, 청대리, 논산리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 이 소나무는 마을의 번영을 가져오는 신령스러운 나무였다. 그러던 어느 날 1그루가 낙뢰로 죽었다. 1그루는 주민이 땀감으로 쓰러고 베었으나 동티를 입고 본인도 죽었다. 이에 청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속초해오미21(‘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전신)은 뜻을 모아 과거 청대산의 상징으로 속초지역 주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청대산 정상의 소나무 3그루를 2005년에 예전처럼 복원하였다.

(라) 청대산 성황당

○ 청대산 산림욕장 조성부지 유적 조사에서 정상부 평탄지에 조성된 적석유구 1기와 동·서·북쪽 경사면에서 석축이 확인되었다. 석축은 평탄지를 둘러싼 형태로 경사면 상부에서만 확인되었다. 적석유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 상태에서 정확한 용도는 파악하기 어렵다. (~ 중략 ~)유물은 주로 적석유구 내부에서 확인되었는데, 반파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편들이 불규칙하게 깔려 있었

10. 속초문화원,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1999, p.128.

11. 속초문화원,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1999, pp.129~130.

12.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수영(1961년생) 전언. 『설악신문』 720호, 2005.08.23., “나영남 ‘청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장 ” 『설악신문』 733호, 2005.11.22., “청대산 ‘소나무 3개’ 복원된다” 『설악신문』 735호, 2005.12.05., “청대산 ‘소나무 3개’ 복원 … 미래의 희망을 심었다”

다. 이밖에 할석 사이에서 자기편과 철마, 철제 빗장 등도 소량 확인되었다. 적석유구의 용도는 할석 사이에서 확인된 철마와 예전에 이곳에 성향목이 있었다는 마을 주민들의 전언 등을 통해 성향당 또는 제사유구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유적이 주변 지역을 조망하기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어 성향당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하략 ~)¹³

○ 청대리 산지당골 : 현재 속초상고(현 설악고)가 들어선 골짜기. 이전에 산제사를 지내던 산신당, 산제당이 있어서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당골로 변화됨.¹⁴

○ 상도문리 산지당골 : 골말에서 뒤(북쪽)로 더 들어간 골짜기. 다른 말로 무승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산신령께 산제사를 지내던 산제당이 있었기 때문이다.¹⁵

○ 중도문리 무승골 : 골말에서 뒤(북쪽)로 더 들어간 골짜기. 다른 말로 산지당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산신령께 산제사를 지내던 사당이란 뜻의 산제당이 변화한 것이 틀림없다.¹⁶

2) 기록을 통해 본 청대(靑岱, 靑垔)

(1) 기록에 보이는 청대(靑岱, 靑垔)

청대리는 1950년 이전에는 현재 속초시 조양동의 일부인 논산리에 속해 있던 자연마을이다. ‘청대’라는 마을 이름이 정해진 시기는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 문헌과 집안 족보, 지명집 등을 통하여 찾은 ‘청대’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a) 강릉김씨 족보¹⁷

○ 김연극 : 자는 시연, 1773년(영조 계사)에 태어나 1832년(순조 임진)에 죽다. 묘는 도천면 청대리(靑垔里) 산제당동 정좌이다.

○ 김진완 : 자는 문철, 1827년(순조 정해)에 태어나 1900년(광무 경자)에 죽다. 묘는 도문 청대산(靑垔山) 자좌이다.

○ 김연명 부인 : 김해김씨. 1841년(헌종 신축)에 태어나 1879년(고종 기묘)에 죽다. 묘는 청대리산(靑垔里山) 임좌이다.

13. 강원문화재연구소·속초시, 『영동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속초 청대산 산림욕장 조성부지내 유적-』, 2011, p.160.

『설악신문』 887호, 2008.12.22., “청대산 정상, 문화재 발견 불구 공사로 훼손”

14.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p.47.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속초의 옛 땅이름』, 2002, pp.93~94.

15.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속초의 옛 땅이름』, 2002, p.57. 중도문리에 있는 무승골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골말은 상도문리가 아니라 중도문1리에 있는 마을로서 중도문 들판에서 청룡암으로 연결되는 골짜기에 형성되어 있다.

16.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p.66.

17. 강릉김씨 인터넷족보(<http://www.kangkim.or.kr/>)

○ 김교경 부인 : 경주김씨. 1871년(고종 신미)에 태어나 1908년(융희 무신)에 죽다. 묘는 청대리산(靑垞里山) 선영 아래이다.

강릉김씨 족보에 김연극을 비롯한 몇몇 분의 무덤이 도천면 청대리 또는 청대산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도천면은 1914년에 생겨났다. 즉 김연극 등이 수록된 족보는 도천면이 생긴 1914년 이후에 만들어졌거나, 족보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당시 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강릉김씨 족보는 원본의 편찬시기를 특정하기 힘들어 족보를 통하여 ‘청대’라는 지명이 1800년대 초에 어느 글자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는 힘들다.

(b) 매곡일기

- 김성필(金聖弼)이 청대(靑岱)로 갔다.¹⁸
- 청대(靑岱)의 이동수(李東守)가 왔다.¹⁹
- 청대리(靑垞里)에서 동수(東守)가 왔다.²⁰
- 청대(靑岱)의 이동수(李東守)가 왔다.²¹

『매곡일기』는 속초지역의 유림인 매곡 오윤환이 1891년부터 1946년까지 쓴 56년간의 기록이다. 일기에는 오윤환과 교류한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 그들의 출생지나 사는 곳도 나온다. ‘청대’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던 1891년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이후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 자료(b)에서 보듯이 오윤환은 ‘청대(靑岱)’와 ‘청대(靑垞)’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c) 조선지지자료²²

○ 강원도 양양군

면 별	종 별	지 명	언 문	비 고
소천면	산곡명	靑垞山	청딤산	所川面 靑垞里
도문면	산곡명	靑垞山	청딤산	道門面 中道門里

1911년경에 제작된 『조선지지자료』에 청대산(靑垞山)은 양양군 소천면의 청대리(靑垞里)와 도문면 중도문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청대리(靑垞里)는 독립된 마을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18. 『매곡일기』 1891.02.27.

19. 『매곡일기』 1891.09.28.

20. 『매곡일기』 1892.02.20.

21. 『매곡일기』 1892.03.02.

22. 신종원 편,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경인문화사, 2007, p.835. 『조선지지자료』, 1911년경

(d) 강원도지리지조서²³

-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 산악 : 靑岱山(靑岱里ノ南二聳立ス)

洞里名	舊洞里名又ハ部落名	戸數		人口		備考
論山里 논미	論山里 논미	八五	四四	五五二	三〇九	
	靑岱里 청딤안이		三六		二一九	
	蓮花洞 연화동		五		二四	

청대리(靑岱里, 청 딤안이)는 『강원도지리지조서』가 만들어지는 1915년경에는 독립된 마을이 아니었다. 논산리·연화동과 함께 양양군 도천면 논산리에 속한 3개 마을 중의 하나이다. 산악 부분에서 청대산(靑岱山)은 청대리 마을 남쪽에 솟듯이 서 있다고 하였다.

(e) 면세일반²⁴

○ 지세 : 본면은 본군의 진산인 설악산의 한맥이 동쪽으로 뻗어 미륵봉 금강굴 천후산(일명 울산암) 달마봉으로 되고, 이것이 두 갈래로 나뉘어 하나는 본면 중앙을 통과해 주봉치 청대산(靑岱山)²⁵ 대포성 지 및 봉화수가 되어 바다에 이어지고 하나는 북부로 뻗어 속초리에 이르러 영금정(일명 화험정) 및 송도가 되고 그것의 나머지 줄기는 해저로 뻗어 약1리의 앞바다에 다시 걸쳐진다고 일컬어 이것을 조도라고 한다.

○ 소아팔경의 기원 : 청대화병(靑岱畫屏)²⁶ - 동 군의 진산인 설악산의 한줄기가 구부러져서 동쪽을 지나 천후산 달마봉이 되고 이것을 두 줄기로 나누어 동서 중앙을 관통해 우뚝 솟아 청대산(靑岱山)이 된다. 제일 높은 곳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수십 그루 있어 항해의 목표가 되고 산봉우리들을 돌아 사계절을 감상하며 늦가을 서리 앉은 잎이 2월의 꽃보다도 붉어질 때 수놓은 병풍을 장식한 미관은 신선의 모습을 자아낸다.

23. 토지리정보원 편, 『강원도지리지조서(양양군·춘천군·원주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화천군·울진군·삼척군·강릉군·평창군·정선군·횡성군·영월군)』, 1915.

24.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옛 문헌으로 본 속초 II -면세일반-읍세일람-』, 2008.도천면, 『면세일반』, 1926.

25.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옛 문헌으로 본 속초 II -면세일반-읍세일람-』, 2008, p.79.도천면, 『면세일반』, 1926.“~ 二脉二分レ一ハ本面中央ヲ通過シ朱鳳峙靑岱山大浦城趾及烽火燧二ナリテ海ニ盡 ~”

26.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옛 문헌으로 본 속초 II -면세일반-읍세일람-』, 2008, p.12.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옛 문헌으로 본 속초 II -면세일반-읍세일람-』, 2008, p.83.“六. 靑岱畫屏 / ~ 東西ノ中央ヲ貫通スル就中聳立天定ヲ〇스ルモノ靑岱山トナス〇〇ノ ~”도천면, 『면세일반』, 1926.“六. 靑岱畫屏 / ~ 東西ノ中央ヲ貫通スル就中聳立天定ヲ〇스ルモノ靑岱山トナス〇〇ノ ~”소아팔경의 하나로 『면세일반』에는 청대화병(靑岱畫屏), 청대산(靑岱山)으로 되어 있다. 원문을 옮기는 과정에서 청대화병(靑岱畫屏)으로 잘못 옮겼다. 이것을 번역할 때에도 청대화병(靑岱畫屏)으로 해놓았다.

1926년에 양양군 도천면에서 발간한 『면세일반』에는 ‘청대(靑岱)’와 ‘청대(靑岱)’의 구분 없이 혼용하였다. 도천면의 지세는 설악산에서 달마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2갈래로 나뉘어 지는데, 그 한 줄기인 도문면과 소천면의 경계를 이룬 산줄기의 중앙에 있는 청대산을 ‘터’의 의미를 지닌 글자를 써서 ‘청대산(靑岱山)’으로 표기하였다. 지역의 유명 명승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소야8경 중의 하나로 ‘청대화병(靑岱畵屏)’을 꼽으며 ‘산’의 의미를 지닌 글자를 써서 ‘청대산(靑岱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름	자/호	본관	거주지	등정일
朴勳弼	字道三	密陽人	居本面靑岱里	1934.12.13.
金成鎬	字喜瑞 / 號次谷	金海人	居本面靑岱里	1941.02.22.

(f) 등정일록²⁷

오윤환은 『등정일록』에 1934년에 건축한 학무정을 찾았던 사람의 내력을 적어놓았다. 1934년부터 1946년까지 212명이 학무정을 찾았다. 청대리에 살던 박훈필과 김성호, 2명이 학무정을 찾았다. 이들이 살던 마을 표기는 ‘청대리(靑岱里)’라 하였다. 오윤환은 『매곡일기』에서는 ‘청대(靑岱)’와 ‘청대(靑岱)’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등정일록』에 ‘청대(靑岱)’라고 하여 당시 사용하던 마을 이름이 ‘청대리(靑岱里)’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생각한다.

(g) 읍세일람²⁸

○ 산세(山勢) : 본읍은 양양군의 종산인 설악산의 일분맥에 완연 아아하게 동으로 빠져 미륵봉 금강굴 천후산(일명 울산암) 달마봉 등을 웅기시키고 여기서 다시 2맥으로 분열되어 1은 본읍의 중앙을 거쳐 주봉치 청대산(靑岱山) 대포성지 및 봉수치가 되며 동해에 개하고 1은 북으로 빠져 속초리에 이르러 영금정(일명 화험정) 및 송도를 이룩하고 기 여맥은 다시 해저로 빠져 해안 약 사천을 격한 해상에 다시 두각을 노출하였으니 이를 조도라 칭함.

○ 행정구역(行政區域)

리명(里名)	국민반수(國民班數)
청대리(靑岱里)	3

수산업의 발달로 속초항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도시로 성장하면서 1942

27. 속초시, 『국역 매곡유고』, 2006, pp.271~274. 매곡선생유고발간추진회, 『매곡유고』, 1980. 날짜는 음력이며, 표의 구분은 원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임의로 한 것이다.

28.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옛 문헌으로 본 속초 II -면세일반-읍세일람-』, 2008, p.35. 속초읍, 『읍세일람』, 1959.

년에 속초면은 속초읍으로 승격한다.²⁹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속초지역은 인공 치하에 들어간다. 이 때 잠시 속초면으로 강등되었지만, 6·25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속초읍으로 환원하였다. 1959년 속초읍에서 발간한 『읍세일람』에는 청대리는 논산리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행정단위로 나온다. 청대산과 청대리는 모두 터의 의미를 지닌 ‘대(岱)’를 사용한다. 이후 나오는 대부분의 기록은 이를 따르고 있다.

(h) 지명조사철³⁰

○ 강원도 양양군 속초읍

번호	지도상지명	지방호칭의한 글자	행정지명	지명의종별	에큐레이시범 로마자	인구	비고
08	청대리	청대리	청대리	리	청대리		(627259)
	靑岱里		靑岱里				
53	청대산	청대산	청대산	산	청대산		(626249)
	靑岱山		靑岱山				

1963년을 전후한 시기에 전국적인 현장 조사를 통하여 『지방별지명조사철』이 제작되었
 29. 1914년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을 합하여 도천면을 만들고 면사무소는 중도문리에 두었다. 1916년에 면사무소를 대포리로 옮기면서 대포리에는 각종 금융기관 및 시설이 들어온다. 1930년대 초반 속초항이 개발되면서 1937년에 면사무소를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긴다. 면의 이름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변경하였다.

30. 국토지리정보원 편, 『지방별지명조사철』, 1963년 전후. 이 조사철은 현지 조사자가 ‘상사 000’, ‘문관 000’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육군에서 한 것이다. 실제 현장 조사와 조사철 제작은 1963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1963년 이후에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여 별도로 부기한 것이 특징이다. 양양지역의 조사대상은 8개 면이다. 이중 토성면과 죽왕면, 2개 면은 1919년 간성군이 고성군으로 개칭될 때 함께 양양군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 때 고성군으로 환원된다. 현남면은 양양군 관할이었는데, 1945년 8·15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9월 16일에 강릉군에 편입된다. 1955년에 강릉시가 독립함에 따라 명주군 소속이 되었다가, 1963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 때 양양군으로 환원된다. 실제 조사표는 1963년 이전 행정구역으로 편철되어 있다. 1963년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사철의 부기에 토성면과 죽왕면의 소속을 양양군에서 고성군으로 수정, 속초면(조사당시 실제 속초읍)은 속초시로 수정, 현남면을 명주군에서 양양군으로 편입한 것으로 추가 기록하여 놓았다.

조사대상			비고 (별도 부기사항)
군 명	읍 면 명	조사자	
양양군	토성면, 죽왕면, 서면, 현북면, 양양면, 손양면, 속초면, 강현면	문관 000	속초면 : 속초읍임, ‘속초면’을 ‘속초시’로 수정 현남면 : 명주군 현남면이 양양군 현남면으로 편입
고성군	거진면, 간성면, 현내면	상사 000	토성면·죽왕면 : 양양군지명조사철에 있음
명주군	강능시, 성산, 사천, 연곡, 구정, 강동, 묵호, 옥계, 왕산, 현남, 주문진읍	000	조사자 외에 대조작업자 ‘문관 000’ 표시

다. 속초시는 1963년 1월 1일을 기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안동시와 함께 읍에서 시로 승격을 한다. 『지방별지명조사철』에 1963년 이전에 조사되어 제작되었으며, 이후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듯이 속초면, 속초읍, 속초시가 모두 나온다. 이 조사철에도 청대산과 청대리는 모두 터의 의미를 지닌 ‘대(岱)’로 표기하였다.

(i) 한국지명총람³¹

- 청대리(靑岱里) : 본래 양양군 소천면 논산리의 지역으로서 청대산 밑이 되므로 청대라 하였는데, 6·25 동란 후 인구가 갑자기 늘어 따라 청대리라 하여 논산리에서 갈라져 독립됨.
- 청대산(靑岱山) : 청대리 남쪽에 있는 산. 높이 230m. 소나무가 무성하여 푸르게 보임. 청대화병(靑臺畫屏)이라 하여 소야팔경(所野八景)의 하나로 유명함.

1960년대 한글학회에서 전국 지명을 조사하여 정리한 『한국지명총람』에는 청대산과 청대리는 모두 터의 의미를 지닌 ‘대(岱)’로 표기하였다. 『면세일반』에 소야8경³²의 하나로 꼽았던 ‘청대화병(靑臺畫屏)’이 이 때부터 ‘청대화병(靑岱畫屏)’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발간되는 책자들은 이를 인용하여 ‘청대화병(靑臺畫屏)’으로 표기하고 있다.

(j) 속초의 지명³³

- 청대화병(靑臺畫屏) : 청대산(靑岱山)이 우뚝 솟은 것이, 마치 그림을 그려 놓은 병풍을 둘러 친 것 같다는 경관, 청대화병(靑臺花屏)으로도 알려져 있음.
- 청대리(靑岱里) : 본래 전통적으로 논산리(論山里)에 속하다가, 1954. 11. 17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될 때 인구증가로 행정상 논산리(論山里)에서 분리 독립되어 청대리(靑岱里)로 불리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조양동(朝陽洞)에 합쳐짐. 마을 뒤(남쪽)에 청대산(靑岱山)이 있어서 청대산(靑岱山) 밑이 되므로 청대리(靑岱里)라고 함. 원래는 청대(靑岱)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청대(靑岱)라고 쓰기 시작하여 지금은 모두 청대(靑岱)라고만 씀.
- 청대산(靑岱山) : 마을 남쪽 중도문리(中道門里)와의 경계에 있는 산. 해발 230m. 소나무가 무성하여 푸르름으로 청대산(靑岱山)이라고 한 것 같다. 부근에서는 모두 청두산이라고 발음한다.

(k) 속초의 옛 땅이름³⁴

- 청대산(靑岱山) : 청대리 남쪽 중도문리(中道門里)와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해발 230m이다. 소나무가 무성하여 청대산(靑岱山)이라고 한 것 같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에 노송 세 그루가 있어 푸

31. 한글학회, 『한국 지명 총람 2(강원편)』, 1967, p.176.

32. 도천면, 『면세일반』, 1926. “六. 靑臺畫屏 / ~ 東西ノ中央ヲ貫通スル就中聳立天定ヲ〇スルモノ靑岱山トナス〇〇ノ~”

33.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pp.41~47.

34.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속초의 옛 땅이름』, 2002, p.38-p.94.

름을 더하였다. 부근에서는 모두 청두산(靑頭山)³⁵이라고 한다.

○ 청대리(靑岱里) : 논산리(論山里)에 속하다가, 1954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될 때 인구 증가로 행정상 논산리에서 분리 독립되어 청대리(靑岱里)로 불렸다. 마을 뒤(남쪽)에 청대산(靑岱山)이 있어서 청대산(靑岱山) 밑이 되므로 청대리라고 하였다. 원래는 ‘청대(靑岱)’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청대(靑岱)’라고 쓰기 시작하여 지금은 모두 청대(靑岱)라고만 쓴다.

○ 청대산(靑岱山) : 마을 남쪽 중도문리와외의 경계에 있는 산.

1990년대 이후 속초의 땅이름을 정리한 『속초의 지명』과 『속초의 옛 땅이름』은 새롭게 확인된 일부 지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두 책에서는 청대산의 이름이 산 정상에 있는 소나무의 푸름에서 유래했음을 밝히고 있다. ‘청대’의 한자 표기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청대(靑岱)’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1) 온정리 고지도³⁶

이 고지도는 온정리마을에 거주하던 안동김씨 집안의 무덤지도로서 1908년(융희 2년)에 만들었다. 온정리 뒷편으로 늘어진 청대산 줄기에 여러 집안의 무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운데에 안동김씨 무덤이 있다. 지도에는 여러 무덤의 주산이 되는 청대산은 ‘대(岱)’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무덤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에서는 ‘대(岱)’를 사용하고 있어, 같은 지도에서 글자를 혼용하고 있다.



35. 청두산(靑頭山)은 산봉우리가 푸르게 보인다고 해서 불려졌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강원도 정선군 군내면의 ‘관음대(觀音臺)’를 ‘관암두’[‘조선지리지’], 1911년경]라고 표기하고 있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두산’도 ‘청대산’을 부르는 지역어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우리 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의미가 확장되어 ‘靑頭山’으로 바뀐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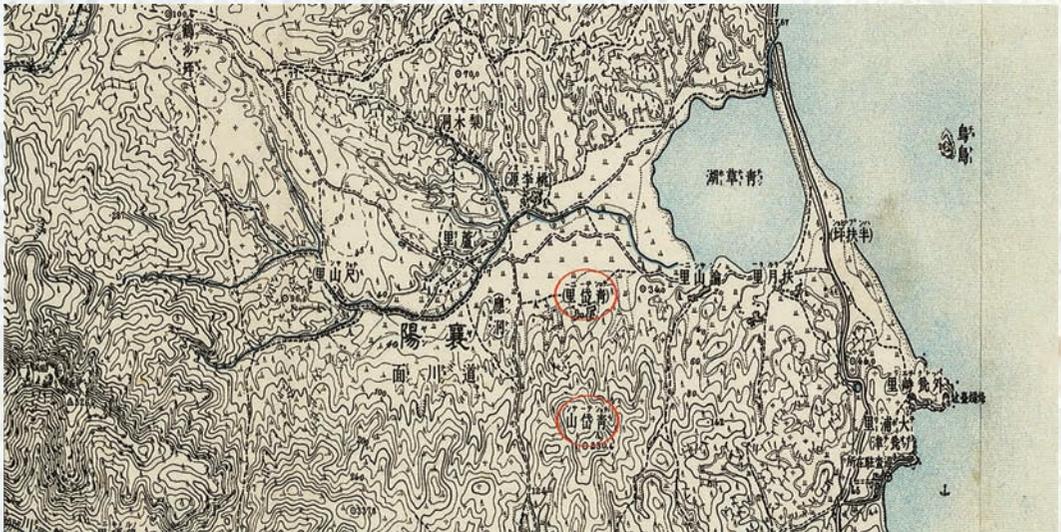
36. 속초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기존의 양양군 소천면과 도문면이 합쳐져 양양군 도천면이 된다. 이 지도는 1908년 무렵의 기록으로 현재 조양동 지역이 소천면으로 되어 있다. 당시 여러 기록을 통해 봤을 때 온정리는 소천면 내 공식 행정구역은 아니고 자연마을이었다. 지도에는 자연지명으로 온정리(인가 5호), 주교리(인가 10호), 부월리(인가 10호), 방축동(인가 3호)이 표시되어 있고 청초호 너머로 속진이 보인다. 1915년에 간행된 『강원도지리지』에는 부월리에 있던 마을로 반부둑(半夜坪, 戶 5, 人口 23), 뱃다리(舟橋里, 戶 37, 人口 199), 방축골(防築洞, 戶 6, 人口 42), 안말(內村, 戶 17, 人口 116), 더운움물(溫井里, 戶 2, 人口 19), 골말(洞村, 戶 3, 人口 18)이 기록되어 있다.

(m) 1913년 1/50000 지도³⁷



일본 육지측량부가 1911년에 측도를 하여 1913년에 제판한 지도이다. 1914년 소천면과 도문면이 합쳐져 도천면이 되기 이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청초호가 속호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도에는 터의 의미를 지닌 ‘청대산(靑岱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n) 1918년 1/50000 지도³⁸



조선총독부에서 1915년에 측도하여 1918년에 발행한 지도이다. 1914년 소천면과 도문면이 합

37.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 『조선오만분일지도』, 1913.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법문사, 2011, pp.214~234. 남영우는 이 지도를 2차지형도로 하였다.

38.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 『오만분일지도』, 1918.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법문사, 2011, pp.214~234. 남영우는 이 지도를 3차지형도로 하였다.

쳐져 도천면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와 거의 같은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로서 일본이 통치 목적으로 만들었으며³⁹, 미군이 이 지도를 활용하여 작전지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 지도에는 청대산과 청대리를 모두 산의 의미를 지닌 ‘청대산(靑岱山)’, ‘청대리(靑岱里)’로 표기하였다.

(o) 1932년 속초항 및 대포항 부근 평면도⁴⁰

이 지도는 양양군에서 속초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에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신청한 문서에 있는 “속초항 및 대포항실측 평면도”내에 삽입된 지도이다. 이 지도는 3차지형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지만, 청대산을 터의 의미를 지닌 ‘청대산(靑岱山)’으로 표기하였다.



(2) 다른 지역의 청대 및 ‘대’자를 사용한 지명

우리나라에는 지형이나 환경에 따라 땅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동네에 특정 과일나무가 많으면 감나무골, 배나무골 등으로 불리우고, 특징적인 건물이 있는 경우 향교 있는 동네는 향교골, 동헌이 있는 동네는 아동(衙洞) 등으로 불리웠다.

‘청대’라는 지명도 전국에 여러 곳이 있다. 이 중에서 한자가 없거나 마을 유래가 없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것을 제외하고, 한글과 한자가 같이 표기되어 있거나 마을 유래가 전해지는 것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ㄱ) 청대골 : 험사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 청대(푸른 대나무)가 많이 있음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⁴¹

(ㄴ) 청대미 : 서남강이 마을 앞으로 흘러서 소를 이뤘다고 해서 청담(靑潭), 청대미라 하였다.[경상남도

39.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참략사』, 법문사, 2011, pp.211~212.

40. 조선총독부, 『속초항수축공사(도면첨부)』, 1932.(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 관리번호 CJA0014081)

41. 한글학회, 『한국 지명 총람 4(충남편·하)』, 1974, p.407.

진양군 지수면 청담리⁴²

(c) 청대(靑垔, 靑大) : 죽현 남쪽에 있는 마을 [전라남도 여천군 울촌면 월산리]⁴³

(e) 청대골(靑大골)·청대동(靑大洞) : 제청말 북쪽에 있는 마을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원당리]⁴⁴

(d) 청대곡(靑垔谷)·청대골(靑垔골) : 독정리에 있는 마을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독정리]⁴⁵

다른 지역은 속초처럼 산의 의미를 지닌 곳은 없다. 특이하게 대나무나 못의 의미를 지닌 지명이 있다.

산이나 마을을 뜻하는 ‘대(垔, 垔)’자를 쓰는 땅이름도 많다. 강원도에서 ‘대’자를 쓰고 있는 땅이름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b) 별첨 1. 조선지리지⁴⁶

(s) 별첨 2. 강원도지리지⁴⁷

1910년대에 강원도 지역의 지명을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b), (s)에는 ‘터’의 의미를 지닌 ‘대(垔)’는 많이 나온다. 대부분 한자 지명을 음 그대로 읽어 ‘딤, 대, 디, 더, 씨, 두’ 등으로 표기한 것이 많으며, 일부 뜻을 살려 ‘터’로 표기한 것도 있다. 속초 청대산처럼 원래 산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터’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곳도 있다. 이 중에서 ‘대(垔, 垔)’가 산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지명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산의 의미를 지닌 지명 *조선지리지⁴⁸, 강원도지리지⁴⁹

42. 한글학회, 『한국 지명 총람 9(경남편 2)』, 1980, p.538.현재는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이다.

43. 한글학회, 『한국 지명 총람 15(전남편 3)』, 1983, p.56.현재는 여천시 울촌면 월산리이다.

44. 한글학회, 『한국 지명 총람 17(경기편 상)』, 1985, p.169.현재는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이다.

45. 한글학회, 『한국 지명 총람 18(경기편 하)』, 1986, p.520.현재는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이다.

46. 신종원 편,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경인문화사, 2007. 『조선지리지』, 1911년경

47. 국토지리정보원 편, 『강원도지리지(양양군·춘천군·원주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화천군·울진군·삼척군·강릉군·평창군·정선군·횡성군·영월군)』, 1915. 국토지리정보원 편, 『강원도지리지(간성군·영월군·정선군)』, 1915. 국토지리정보원 편, 『강원도지리지(홍천군·횡성군·평창군)』, 1915. 국토지리정보원 편, 『강원도지리지(회양군·김화군·양구군·춘천군·홍천군·간성군·인제군·통천군·화천군·평강군·철원군·이천군)』, 1917.

48. 신종원 편,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경인문화사, 2007. 『조선지리지』, 1911년경

49. 국토지리정보원 편, 『강원도지리지(양양군·춘천군·원주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화천군·울진군·삼척군·강릉군·평창군·정선군·횡성군·영월군)』, 1915. 국토지리정보원 편, 『강원도지리지(회양군·김화군·양구군·춘천군·홍천군·간성군·인제군·통천군·화천군·평강군·철원군·이천군)』, 1917.

<표>

군·면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지리지조서	
원주군 지향곡면	作岱谷	작달미기		
회양군 장양면	岱胡岱	딴호터	岱湖岱	미호터
양양군 도천면 (도문면, 소천면)	靑岱里		靑岱里	청딴안이
	靑岱山	청딴산	靑岱山	靑岱里ノ南二聳立ス

원주 지향곡면⁵⁰에 있는 ‘작대곡(作岱谷)⁵¹’은 한글로 ‘작달미기’라고 표기하였다. 현재도 그대로 읽어 ‘작달매기’로 부르고 있다.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이운동에서 문막읍 취병리 작달막(作達幕)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땅이름에 사람이 넘나들 수 있는 산줄기의 낮은 턱을 뜻하는 ‘고개, 재, 령(嶺), 치(峙), 현(峴)’ 등을 쓰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땅이름의 한자어로 봤을 때는 골짜기 이름을 가리키다 사람이 넘나들면서 고개를 가리키는 뜻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한글로 ‘딴’을 표기한 것은 이전부터 부르던 고개 주변의 산 이름이 아닐까 싶다. 회양군 장양면 류동리의 대호대(岱胡岱, 岱湖岱)의 경우 자료(하)에서는 ‘딴호터(岱胡岱)’로 음차와 훈차를 섞어 표기하였다. 자료(사)에서는 ‘미호터(岱湖岱)’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원래 뜻을 되살려 내어 한글표기는 하였으나 한자지명은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산의 의미를 지닌 ‘대(岱)’를 사용한 것은 속초의 ‘청대리(靑岱里)’와 ‘청대산(靑岱山)’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대(岱)’를 사용하였다.

(3) 청대리 지명의 변화

전국적으로 ‘청대’라는 땅이름은 푸른 색의 심상과 연관이 있다. 속초의 청대산은 소나무의 푸르름과 연결되지만, 자료(ㄱ)과 같이 대나무나 자료(ㄴ)과 같이 물웅덩이와 같은 푸른 색과 연결되는 땅이름도 있다. 하지만, 속초 청대리 지명이 소나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지명유래가 밝혀지지 않은 청대리는 나무의 울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아주 흔한 나무이지만 속초에서는 산과 마을 이름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청대리의 마을 이름은 ‘청대(靑岱)’만 쓰고 있다. 자료(ㄱ)와 (ㄴ)에 언급했듯이 원래 청대는 ‘청대(靑岱)’를 사용했으나 언제부터인지 ‘청대(靑岱)’를 쓰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대는 마을 이름 유래로 미루어보면 ‘청대(靑岱)’가 맞을

50. 한글학회, 『한국 지명 총람 2(강원편)』, 1967, p.307.지정면 : 원성군 9면의 하나. 본래 원주군의 지역으로서 지향곡의 이름을 따서 지향곡면(地尙谷面)이 되었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정지안면(正之安面)과 병합하여, 두 면의 이름을 따서 지정면(地正面)이라 하였다.

51. 한글학회, 『한국 지명 총람 2(강원편)』, 1967, p.311.안창리 / 작달매기 : 이운동 앞에 있는 고개, 이운동에서 문막면 취운리(취병리의 오타입)로 넘어감.

것 같으나 한자는 ‘청대(靑岱)’와 ‘청대(靑岱)’가 명확한 구분없이 기록하였다.

‘청대리’라는 명칭은 19세기 전반에 강릉김씨 연극의 무덤이 있는 동네로 나오지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강릉김씨 족보의 경우 원본의 편찬시기를 특정하기가 힘들어 지명 사용시기는 불명확하다.

속초지역의 유림인 오윤환은 자료(b)에서는 ‘청대(靑岱)’와 ‘청대(靑岱)’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자료(f)에는 ‘청대(靑岱)’로 쓰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오윤환이 살던 시기에 주로 사용하였던 마을 이름은 ‘청대리(靑岱里)’로 여겨진다.

‘청대’가 공식 기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911년경에 제작된 지리지인 자료(c)이다. 지리지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1913년 발행 2차지형도⁵²에 반영되어 자료(m)에 ‘청대리(靑岱里)’로 표시되어 있다. 1915년에 제작된 지리지인 자료(d)는 1918년 발행 3차지형도에 반영⁵³되어 자료(n)에 ‘청대리(靑岱里)’, ‘청대산(靑岱山)’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초기에 제작·발행한 지리지와 지도에 시기를 달리하여 지명이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⁴

‘청대(靑岱)’와 ‘청대(靑岱)’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은 1926년에 간행된 자료(e)부터이다. 도천면의 지형을 설명하는 부분과 유명 명승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명확한 설명없이 ‘청대(靑岱)’와 ‘청대(靑岱)’를 함께 쓰고 있다.

이후 간행된 자료에서는 이런 혼용을 피하고 모두 ‘청대(靑岱)’만을 사용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에 제작된 자료(g), (h), (i), (j), (k)에는 ‘청대리(靑岱里)’, ‘청대산(靑岱山)’으로 기록하였다. 6·25전쟁이 끝나고 난 뒤인 1959년에 간행된 『속초읍읍세일람』에 ‘청대리(靑岱里)’, ‘청대산(靑岱山)’로 기록된 지명은 1963년경 제작한 『지방별지명조사철』, 1967년 간행된 『한국지명총람』 등 전국적인 기록에 동일하게 표기되었다. 이후 속초의 지명을 정리한 1990년 간행 『속초의 지명』과 2002년 간행 『속초의 옛 땅이름』에서는 원래 땅이름의 유래는 ‘청대(靑岱)’로 여겨지지만 현재 널리 사용되는 ‘청대(靑岱)’가 공식적인 지명임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자료(e)처럼 같은 기록에서 ‘청대(靑岱)’와 ‘청대(靑岱)’를 구분없이 사용한 것은 1908년경에 제작한 자료(l)이다. 속초시 온정리 마을⁵⁵에 전해지고 있는 지도로서, 지도에는 ‘청대산(靑岱山)’으로 표기하였지만, 설명하는 글에는 ‘청대산(靑岱山)’으로 기록하였다.

1910년대에 강원도 지역의 지명을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h), (s)에는 ‘터’의 의미를 지닌 ‘대(岱)’는 많이 나오고 있으나, ‘산’의 의미를 지닌 ‘대(岱)’를 쓴 것은 속초시 사례가 유일하다. 원주 ‘작달미기’나 회양 ‘미호터’처럼 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

52.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법문사, 2011, pp.214-234.

53.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법문사, 2011, pp.214-234.

54. 일제강점기 초기에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전에 각 지역의 지명 자료를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리지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55. 현재 속초시 조양동 자연마을 중의 하나이다. 서쪽으로 논산리, 동쪽으로 부월리와 접해 있다.

자료 정착되는 과정에서 ‘대(岱)’로 표기하였다.

청대산과 청대리가 나오는 출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청대’가 나오는 기록물

출 전	구분 (제작년도)	청대(靑岱)		청대(靑岱)	
		마을	산	마을	산
매곡일기	1891년~1892년	○		○	
온정리 고지도	1908년		○		○
조선지지자료	1911년경			○	○
2차지형도	1913년			○	
강원도지지조서	1915년	○	○		
3차지형도	1918년	○	○		
면세일반	1926년		○		○
속초항및대포항부근평면도	1932년				○
등정일록	1934년, 1941년	○			
읍세일람	1959년			○	○
지명조사철	1963년 전·후			○	○
한국지명총람	1967년			○	○
속초의 지명	1990년			○	○
속초의 옛 땅이름	2002년			○	○

확인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지명 분석이 가능한 것은 『매곡일기』를 비롯하여 ‘청대(靑岱)’와 ‘청대(靑岱)’를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온정리 고지도』와 『면세일반』이다. ‘청대(靑岱)’만을 사용하는 것은 『강원도지지조서』와 『3차지형도』이다. 그 외의 자료들은 ‘청대(靑岱)’를 사용하고 있다. 1945년 이후의 기록은 모두 ‘청대(靑岱)’를 사용하고 있으나, 1945년 이전의 기록에서는 ‘청대(靑岱)’를 사용하는 것이 6종, ‘청대(靑岱)’를 사용하는 것이 6종으로 거의 같다. 청대리가 공식적인 행정 구역으로 등장하는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논산리에 포함된 자연마을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행정구역 확대에 청대리가 생겨났고, 이 때부터 마을과 산의 이름이 ‘청대(靑岱)’로 고정된 것이다.

청대의 어원은 소나무가 많아 푸르른 산에서 왔다. 산 이름이 먼저 만들어지고, 산 밑에 마을이 있으므로 청대리가 된 것이다. 어원을 따르면 청대는 산의 의미를 지닌 ‘청대(靑

岱)가 되어야 한다. 1910년대 전반에 간행된 『조선지지자료』나 『2차지형도』에는 ‘청대(靑岱)’로 기록되어 있지만, 1910년대 후반에 간행된 『강원도지지조서』와 『3차지형도』에는 ‘청대(靑岱)’로 기록한 것은 이후 좀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조사를 상세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지도 간행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의 뜻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당대 사람인 오윤환의 『등정일록』의 기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표로 그려보면 <표3>과 같이 청대산에서 ‘청대(靑岱)’가 생겨나고, 이어서 ‘청대(靑岱)’라는 마을이 생겨났다. 이어서 ‘청대(靑岱)’가 함께 쓰이기 시작한다. ‘청대(靑岱)’는 1950년대 이후 쓰이지 않고 ‘청대(靑岱)’가 기록에서 우위를 점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3> ‘청대’의 시기적 변화

시기 대상	생 성	기 록				
		19c 후반	20c 초	20c 중반	1950년대	현 재
산	靑岱	靑岱 →				
			靑岱 →			
마을	靑岱	靑岱 →				
			靑岱 →			

청대산과 마찬가지로 푸른 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더 있다. 설악산의 주봉인 청봉(대청봉, 중청봉, 소청봉)이다.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에 ‘멀리서 보면 아득하게 푸른 옥색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으로 그 봉우리를 가리켜서 이름을 청봉(靑峰)이라고 하였다.’라 기록되어 있다.⁵⁶ 속초사람들은 집을 나와 고개를 돌리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설악산이다. 설악산의 주봉은 ‘청봉’이고, 설악산에서 갈라져 나와 속초를 관통하는 산줄기가 ‘청대’이다. 푸른 산의 의미가 속초사람의 인식 속에 우선적으로 들어있는 것이다.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지 마을 뒤에 있는 산이 아니라는 뜻이다. 공식적인 행정지명으로 마을의 의미가 굳어졌지만, 지명유래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여전히 산이 먼저이다. 지역 주민은 푸른 산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있으므로 지명도 그렇게 따라가야 함이 옳다.

56.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p.83. 양주지편찬위원회, 『양주지』, 양양군, 1990, p.734.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속초의 옛 땅이름』, 속초문화원, 2002, p.66.

3. 맺음말

현재 청대리와 청대산의 공식적인 한자 지명은 ‘靑岱里(청대리)’와 ‘靑岱山(청대산)’이다. 청대라는 지명은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이 사용한 이름이다.

1990년대 이후 속초 지명을 정리한 책에서는 언제부터 혼용된 지 알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여러 기록을 살펴본 결과 19세기 말 『매곡일기』에서 청대(靑岱)와 청대(靑岱)를 혼용한 것이 처음이다. 한자가 가지는 의미는 다르지만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꾸준하게 함께 사용하였다. 같은 기록에서 함께 쓰이기도 하고 둘 중 하나만 기록하기도 하였다. 양양군 도천면에서 1926년에 간행한 『면세일반』 이후 여러 공식 기록에 ‘청대(靑岱)’로 고정되기 시작한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청대리가 단독 행정구역이 된 뒤부터는 ‘청대(靑岱)’만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공식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고 땅이름 유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청대’와 관련된 마을과 산의 이름을 여러 자료를 확인해 보면 ‘청대’의 한자 표기는 산의 유래가 푸른 소나무가 우거졌기에 이름붙여진 것이다. 설악산의 주봉인 ‘청봉’도 푸른 산의 의미이다. 사람들도 청봉이나 청대산을 모두 푸른 산으로 이해하고 있다. 마을은 그 산의 밑에 있기에 이름붙여졌다. 1910년대 기록(지지와 지도)과 1890년대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현장을 기록한 『매곡일기』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당시에는 ‘산(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0년대에 강원도 지역의 지명을 조사하여 정리한 『조선 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에는 ‘터’의 의미를 지닌 ‘대(岱)’가 많이 나온다. 대부분 한자 지명을 음 그대로 읽어 ‘터, 대, 덕, 더, 썬, 두’ 등으로 표기한 것이 많다. 일부는 뜻을 살려 ‘터’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산의 의미를 갖고 사용한 것은 속초의 ‘청대리(靑岱里)’와 ‘청대산(靑岱山)’이 유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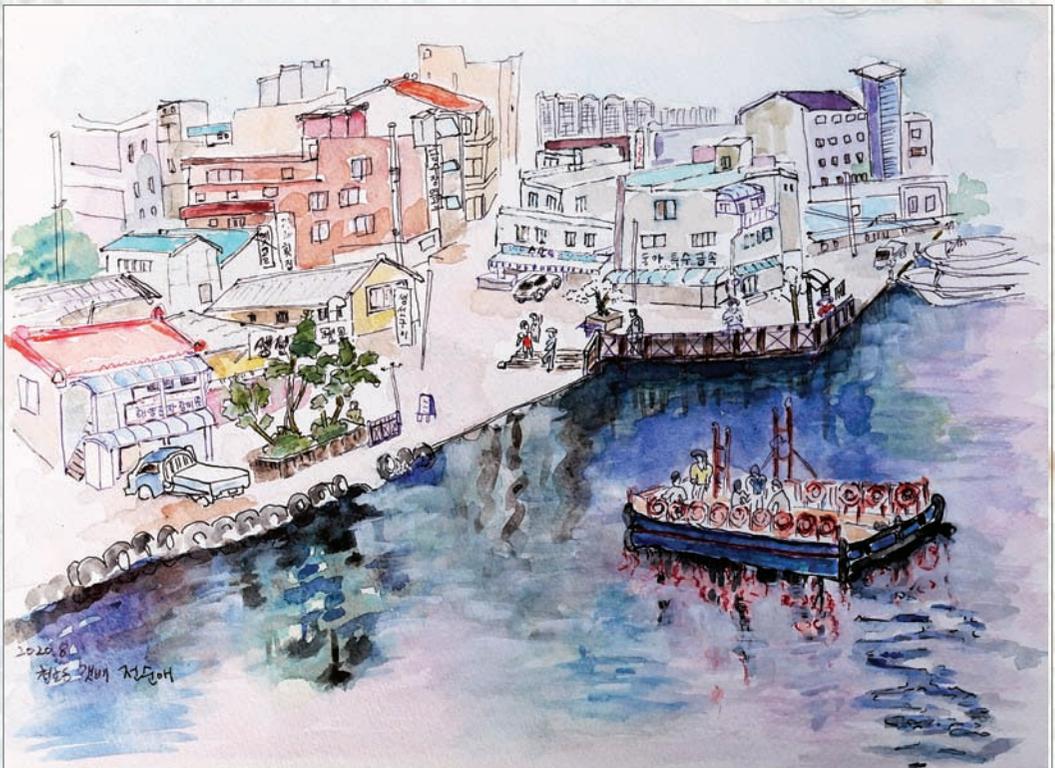
지명에서 쓰이는 ‘靑’이 가지는 심상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파랗다고 하는 색깔의 의미이다. 청양 신정리나 진주 청담리의 청대는 모두 푸른 색을 나타내고 있다. 속초의 청봉도 푸른 옥색으로 조금 더 확장된 푸른 색을 나타낸다. 둘째, 울창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양감의 의미이다. 속초 청대리처럼 소나무가 울창하여 그 모습이 푸르다고 하는 것이다. ‘靑’이 색깔의 의미에서 양감의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서 ‘터’보다는 ‘산’과 더 의미가 어울린다고 할 것이다. 지명이 만들어진 유래 및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청대산·청대리’는 ‘삶의 터’를 의미하는 ‘대(岱)’가 아니라 『강원도지지조서』에 표기된 것처럼 ‘산’을 뜻하는 ‘대(岱)’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대산을 바라보고 오르며 생활해오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고 마음에 담고 있는 의미일 것이다.

올바른 지명 찾기는 정체성 찾기이다. 청대는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것에서 산의 의미로 확장이 되었다. 19세기 기록에는 산의 의미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곧 산과 터의 의미를 혼용하는 과정에서 산의 의미가 터의 의미로 변형이 되었던 것이다. 지명유래는 당시대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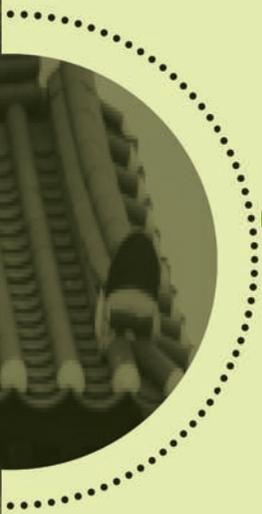
인지하고 있는 것과 글자가 가지는 정체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지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삶의 변화, 지형의 변화 등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지명 변화의 요소는 다양하다. 지명의 내력을 살펴 적절한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지명이라고 하는 문화자원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을 살펴야 한다. 이것이 지역의 지명 정체성 연구와 조사의 주된 이유이자 목적이다. 언어와 지형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뀐다. 시대와 상황에 변함에 따라 바뀌는 지명표기도 필요하지만, 원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찾아 지명을 포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과제이다.

속초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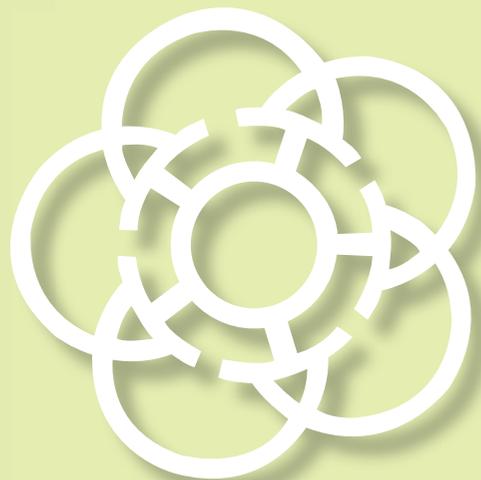


전순애作 · 갯배가 있는 풍경 · Watercolor on paper



“특집2”

- 속초학 개론
- 속초의 지역문화 그리고 교육



속초학 개론(束草學 概論)*

양용석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지역학이란

3. 한국에서의 지역학 연구

4. 지역학 연구의 특징

- 1) 정치적 환경의 영향
- 2) 사회적 환경의 영향
- 3)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

5. 속초학 연구

- 1) 속초학 연구의 시작
- 2) 속초학 연구의 방향성
- 3) 속초학 연구의 문제점 및 지향점

6. 맺는말

: 속초학 연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속초학(束草學)이란 속초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여러 분야를 총망라하는 학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의 명칭 뒤에 ‘학(學)’을 붙여 ‘어떤 한 특정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지칭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지역학(地域學, Area Studies)’의 범주에 속한다.

많은 이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지역학’이란 용어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한국 사회에서, 이와 관련 있는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희소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학문 영역에서의 지역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역사는 짧지만, 지역학 학자들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에

* 이 글은 2020년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주관한 ‘속초학 아카데미’ 강좌 강의 원고를 참고로 합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학(학사), 정치학(미국학 전공 석사), 국제지역학(미국 사회·문화 전공 박사)을 공부하였다. 미국 U.C. Berkeley, Hawaii Univ., Montana Carroll College 에서 교환학생 및 방문 교수로 있으며 지역학 연구 과정에 참여하였다. 석사논문으로 ‘America’s Response to Immigr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1920s and the 1990s’, 박사논문으로 ‘한국 학생들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국가 조기유학 연구; 특성, 결정 과정, 효과를 중심으로’가 있다.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국내 특정 지역을 연구하는 지역학은 몇몇 지역의 경우 각 지역의 자발적 의지가 주도한 향토사 연구로 시작되어 학문 영역으로까지 자리매김하는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많은 경우 시작 단계의 모습과 성향에서 변화와 성장이 아쉬운 횡적(橫的) 진행으로 지속·반복되고 있는 점은 한계성으로 볼 수 있다.

속초학의 경우 그동안 지역의 여의치 않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속초 지역 연구에 관심 있는 소수의 인적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적지 않은 결과물들을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이 역시 속초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연구의 전문성이나 체계성, 이를 위한 행·재정을 포함한 집중적인 지원 등이 아쉬운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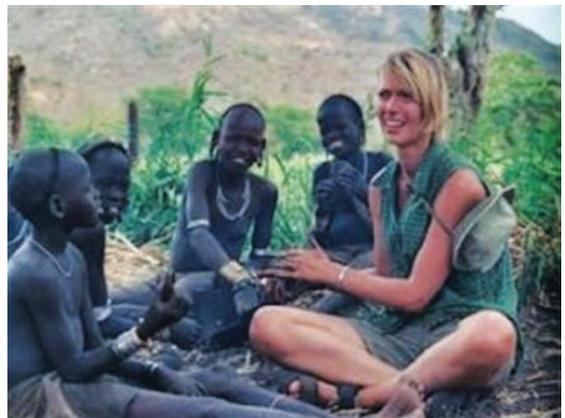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지역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이해, 특징 등을 시작으로 지역학 범주에서의 속초학의 정체성,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속초학 연구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속초학이 가져가야 할 방향성, 속초학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하려 한다.

2. 지역학(地域學)

‘지역학’의 학문적 시작점은 속초학과 같은 ‘국내 도시나 국내 지역’의 연구가 아닌 세계의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연구하는 ‘국제지역학’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미국학, 유럽학,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 등의 용어로 대표되는 지역학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초기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와 그 지역

의 이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학자들의 자발적인 지적 호기심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주도하에, 국가 이익이라는 필요성에 의해 진행된 ‘계획된 프로젝트’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유럽 열강들의 식민시대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강대국들이 다른 국가나 민족을 복속시켜가는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것은 “식민지의 효율적 지배와 통치를 위한 해당 지역의 상세한 정보”였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특성,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 그리고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효율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문화인류학자 제3세계 연구, 현지조사>

또한, 강대국들이 약소국들과의 수교를 통해 현지 국가에 설치한 대사관이나 문화원을 통해 현지의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자료를 분석·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현지의 지식층들을 포함한 소수 엘리트 그룹을 대상으로 자국으로의 해외 유학 등을 포함한 특혜를 부여하여 정신적 식민을 강화하였던 사례들도 지역학 연구 목적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연구와 조사에 있어 정부의 의



<Harvard Univ., USA>



<Hawaii Univ. USA>

지가 주요 동인(動因)으로 작용한 것과는 별개로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은 ‘문화 인류학자’들이다. 비서구(非西歐) 문명이나 제3세계의 인종, 민족 및 국가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문화 인류학자들의 통상적인 연구방법론은 ‘연구 방향,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1차 현지조사, 정리, 2차 현지조사, 연구결과물 도출’ 과정을 거치며 정성적(定性的) 연구방법론과 정량적(定量的) 연구방법론을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두는 등 이들의 역할과 연구가 지역학이 학문적 영역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¹

1. ‘민족지(Ethnography, 民族誌)’가 대표적인 학문 분야이다. 문화기술지(文化記述誌 ethnography) 또는 민족지학(民族誌學)이라고 불리운다. 인간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현상을 정성적, 정량적 조

한국을 예로 들어보면 불과 20여 년 전까지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을 총망라한 ‘한국학’에 대한 자료나 연구물 등이 가장 풍부했던 곳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미국의 대학교나 연구소 등)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²

3. 한국에서의 지역학 연구

한국에서의 지역학 연구는 70~80년대 해외 유학과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는 지역학이 ‘국내지역학’이 아닌 ‘국제지역학’이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초기 해외 유학과들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그 수나 유학 대상 국가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유학비용 등의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 1980년대 중반까지는 당시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당시 중공, 소련 등)로의 유학은 정부의 통제하에 금지되어 있었고, 남자들의 경우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외국으로의 출국 자체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외국 유학을 떠난 이들은 아주 특별한 계층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주로 향한 곳은 일본, 미국, 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일부 유럽 국가들이었다. 그들이 외국에서 공부한 전공 분야(경제학, 경영학, 문학, 자연과학, 공학 등)는 다르

사기법을 사용한 현지조사를 통해 기술하여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이다. 문화기술지는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각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통해 전체 시스템의 총체적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식적, 역사적으로 과거 여행을 통한 여행기이나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의 공식 보고서에 그 시작을 두고 있다. 문화기술지는 특히 구조주의와 상대주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관심을 가진 다른 분야의 유용한 1차적 연구 방법(Primary research)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2. 미국의 Harvard Univ., Hawaii Univ. 등이 한국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학들이다.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울대학교>

더라도 유학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국내로 돌아 오면 해당 지역 전문가로 인정을 받던 시절이었다. 희소성과 더불어 해당 국가 언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였다.

국내 대학들에서의 지역학 관련 학과 설치 및 전공 개설은 80년대 중반 정도를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유학 자유화 시행’, 2000년대 들어 ‘글로벌(Global)’이 정부를 중심으로 방향성과 성장성의 상징이 되면서 국내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대학원 과정부터 지역학 관련 학과들이 속속들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³

3. 국내 대표적인 지역학 연구 중점 대학으로는 ‘한국의국어대학교’를 들 수 있다. 국내 대학 중 연구 지역이 가장 많으며 역사 또한 가

4. 지역학 연구의 특징

지역학 연구는 타 학문과의 대표적인 차별성으로 지역학 연구에 있어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과 학문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기본적인 필수요건은 해당 지역의 ‘언어 구사 능력’이다. 그 지역의 언어를 알아야만 현지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구술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연구 지역 관련 문헌 조사 등을 진행하여 연구목적이나 결과에 있어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학 연구를 대표하는 또 다른 특징은 “학제간 연구(學際間 研究, Interdisciplinary Study)”에 있다. 학제간 연구는 어떤 대상을 연구할 때 서로 다른 여러 학문 분야가 제휴하여 통합적 연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영어(American English) 연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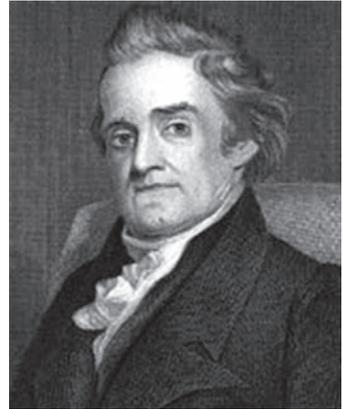
보통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미국영어와 영국영어(British English)의 차별성을 “발음(Pronunciation)”으로 본다. 하지만 미대륙 발견 이후 영국이 미대륙 식민지의 주도권을 차지하여 영국 본토에서 청교도를 중심으로 미대륙에 정착을 하였지만 당시 영국에서 사용하던 영어는 미대륙에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자연적 환경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어 영국영어와 다른 미국영어가 만

장 오래되었다. 기존에 구축된 세계 각국 언어 전공 학과(45개 언어 전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타 대학들보다 일찍 대학원과 학부에 지역학 전공을 설치, 지역학 특성과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학 전공은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대부분 해당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한국학 전공의 경우 외국유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서도 지역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4. 당시 영국영어를 영어발달사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3~1603) 시대 영어’로 칭한다.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



<노아 웹스터, Noah Webster>

들어지게 된다.

1) 정치적 환경의 영향

1776년 7월 4일 영국에 독립선언을 한 식민지 미국은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나가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위상과 정리 역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18C 말,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⁵과 그의 동료들은 전쟁 상대국인 영국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언어의 독립을 위해 ‘미국영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노아 웹스터’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아 웹스터(Noah Webster, 1758~1843)⁶는 ‘간소화된 미국식 철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존 영국영어

에서 발음과 무관한 철자⁷를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1828년 <미국영어사전(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을 발간하면서 이를 반영시켰다. 대표적인 단어로는 programme(영) ⇒ program(미), centre(영) ⇒ center(미), colour(영) ⇒ color(미), honour(영) ⇒ honor(미) 등이 있다.

미국의 소수 엘리트 그룹을 중심으로 영국과 다른 미국만의 철자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의 애국주의와 맞물려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사회적 환경의 영향

미국의 대표적 정체성(Identity) 중 하나인 ‘Melting Pot(용광로)’은 “다양한 인종

7. 영국어는 프랑스어에 영향을 받아 발음과 무관한 철자가 생겨났다. 11세기 노르망디 공작인 윌리엄이 영국을 침공, 영국 지배층이 프랑스가 되어 학교, 법원, 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것이 중간 계급까지 확산되어 영어와 프랑스어가 혼용되었던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1700년대에 영국에서 프랑스 스타일의 말과 스펠링을 사용하는 유행이 먼저 영국어에 많은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5. 미국 정치가 겸 사상가. 미국 헌법의 뼈대를 완성,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운다.

6. 미국의 연방주의자. 미국의 독자적인 사전 기획 및 편찬. ‘미국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영어 철자법 개혁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과 민족이 모여, 섞여 하나의 새로운 미국인(American)이 되었다.”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독립전쟁 이후 1800년대 미국의 서부로의 영토 확장⁸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종교적 탄압,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인 미국으로 유입되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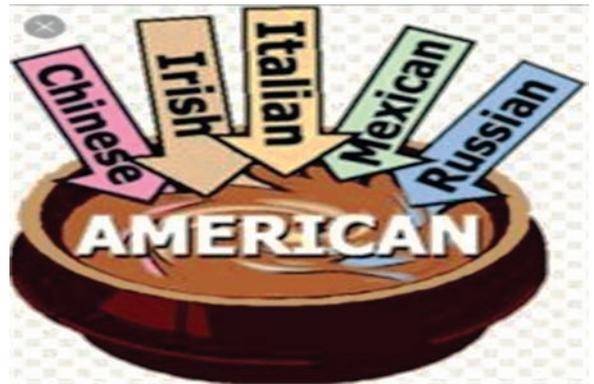
이민 1세대들의 문화양식(식생활 등)은 민족과 출신 국가에 따라 차이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 북부 작은 어업도시인 함부르크(Hamburg, Germany)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해 고향에서 먹던 음식인 “빵과 빵 사이에 고기를 넣어 먹는” 식습관을 유지하였다.

이에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8. 독립전쟁의 승리로 영국이 차지하고 있던 에팔레치아 산맥 서부의 땅이 미국의 차지가 된다. 이는 오대호부터 미시시피강 하류에 이르는 거대한 땅으로 당시 13개주를 합친 것보다 훨씬 넓은 땅이었다. 또한 1803년에 미국은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Louisiana, 지금의 루지애나주와는 다름)를 헐값(당시 1,500만 달러)으로 사들였는데, 이는 남북으로는 미시시피 강 입구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동서로는 미시시피강에서 록키산맥에 이르는 총면적 220만km²로 면적으로 러시아 다음가는 대국이 되었다. 미영전쟁(1812~1814)을 승리로 이끈 미국은 서부로의 진출과 개발을 가속화하였고, 특히 1848년 미 서부의 금광 발견과 개발로 인구는 급증하게 된다. 영토확장과 맞물려 미 대륙의 원주민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며 그들의 영토를 차지하는 등 일련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명분이 주 그리스도 신이 미국인에게 부여한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다.

9. 1800년경 미국의 인구는 530만, 1850년에는 2,300만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는데 이는 1845년부터 1860년 사이에 유럽에 불어 닥친 흉작과 1848년 프랑스 혁명의 여파였다. 아시아인들은 중국인들이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과 영국과의 아편전쟁(1차 전쟁 1840년, 2차 전쟁 1856년) 패배로 인한 혼란 등으로 인해 광둥성을 중심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 당시 미국은 서부로의 영토확장과 금광개발 등으로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대부분을 중국인들로 충당하였다.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법 중 하나인 ‘중국인 배척법, The Chinese Exclusion Act of 1924’가 1924년에 만들어지기 전까지 중국인들은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의 부락을 이루며 미국 서부에 정착하였다. 미 서부에 ‘China Town’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기도 하다.

라는 의미의 ‘햄버거(Hamburger)’라는 새로운 미국영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햄버거 샌드위치(Hamburger Sandwich)라고 부르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햄버거’로 줄어



<American Melting Pot, 인종의 융광로>



<1800년대 미 서부 개척시대 이민노동자들>



<미국 햄버거 이미지>



<독일 함부르크>

들었고, 나중에는 빵 사이에 들어가는 주요 재료에 따라 ‘에그 버거(Egg Burger), 치즈 버거(Cheese Burger), 쉬림프 버거(Shrimp Burger)’ 등으로 축약·변화하게 되었다.

3)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

유럽인들의 신대륙 발견 이전 미대륙의 원주민은 ‘인디언(American Indian)’이었다. 미대륙에서 유럽인들이 영토 확장과 개발이 있기 전까지는 두 세력 사이에 갈등이나 전쟁보다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우세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은 1621년 가을 플리



<1600년대 인디언들을 초대한 추수감사절 이미지>

머스(Plymouth, 1620년 Pilgrim Fathers가 New England에 건설한 도시)의 총독 윌리엄 브래드퍼드(William Bradford, 1590~1657)가 수확의 풍요함을 감사하며, 축제를 3일 동안 열고 근처에 사는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초기의 개척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서 유래한다.

인디언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고 함께 즐긴 이유는 그들이 미대륙으로 건너온 초기 영국인들의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착민들에게 신대륙의 풍토병을 이길 수 있는 약초를 주었으며, 새로운 땅에 맞는 곡식의 씨앗을 제공하였고, 신대륙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착민들의 거주와 생활에 도움을 준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이주민들(특히, 청교도 영국인들)은 인디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언어를 차용(借用)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어휘가 ‘squash’이다.

호박(pumpkin) 맛이 나면서 크기는 작은 열매를 인디언들이 ‘스퀴시’라고 발음하는 것을 보고 그 발음을 영어로 표기한 것이 미대륙의 호박을 의미하는 ‘squash’라는 미국영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인디언 언어의 영향을 받은 미국영어 단어에는 ‘canoe(카누)¹⁰’, ‘Tomahawk(토마호크 미사일)¹¹’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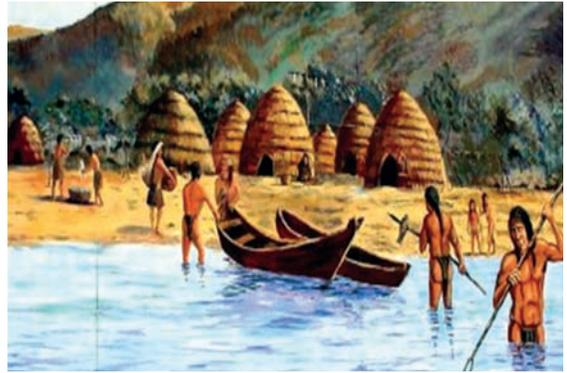
이와 같이 미국영어를 연구하는데 있어 주요 방법론은 언어학적인 연구 방법 외에도 ‘역사학, 사회학, 문화학, 정치학’ 등이 함께 작용하

10. 미동부에서 물살이 빠른 작은 협곡을 타기에 유용하였던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배. 당시 영국인들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보트는 미동부 협곡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11.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해 시작된 ‘걸프전(Gulf War)’에서 미국이 사용했던 미사일 이름. 인디언 말로 ‘도끼’라는 의미이다.



<미국 호박 : squash>



<인디언 카누 : canoe>

는, 지역학 연구 방법인 ‘학제간 연구’로 볼 수 있다.

‘융·복합’이라는 용어로도 불리는 이러한 학제간 연구는 지역학 이외에도 공학, 경영학, 관광학, 미학, 고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관광학’에는 ‘지리학,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 지역학 등’이, 교육학에는 ‘사회학, 행정학, 심리학, 철학 등’이, 건축학에는 ‘물리학, 지질학, 미학 등’이 공동으로 연구되는 분야이다.

5. 속초학 연구

1) 속초학 연구의 시작

속초학(束草學)연구는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등을 포함한 정체성을 연구하는 분야와 방향과 그 궤(軌)를 같이한다. 국내 대표적인 지역의 지역학으로는 ‘서울학(1993), 안동학(2001), 부산학(2003), 인천학(2002), 대전학(2003) 등이 있다.

1963년 시(市)로 승격한 속초시는 그 이전까지 행정구역상 ‘강원도 양양군’에 속해 있었던 작은 리·면·읍 단위에 불과하였다.¹²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물이나 기록이 이야기하는 속초는 ‘구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였던 지역이기도 하였다.

‘속초’라는 명칭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단종 2년(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속초포가 양양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라는 부분이다. 그 이후 조선 영조 36년(1760년)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로 속초는 조선 시대 양양도호부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한 동리였다.¹³ 또한 1871년 편찬된 『관동읍지』에 실린 속초의 인구는 “도문면에 538명, 소천면에 668명으로 총 1,206명”이라고 수록되어있다. 도문면은 상도문리를 포함한 6개의 마을이 있었고, 소천면은 논산리를 비롯한 4개의 촌락(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12. 일제강점기인 1937년 면사무소를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이전하여 속초면이라 개칭하고, 1942년 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13. 김정환·박명선·손병섭·정종천·최현식 공저, 『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속초문화원, 2013), p.46.



<옛 속초 전경과 수복탑>

속진리)이 있었으며, 도문면은 논농사가 발달되어 있었고 소천면의 논산리, 부월리는 평야지대를 끼고 있었으나 속초리는 대부분이 미개척지였고 속진리는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인구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었다. 당시 속초는 전통적으로 어업보다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며 인구의 대부분이 강가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촌락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6.25 전쟁 이후에는 ‘수복지구(收復地區)’라는 특수성도 존재한다. 일제 강점기 때는 속초의 일부가 일본의 전략기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속초는 실향민들이 거주하며 1960~1980년대 초까지 어업 도시로서 이름을 높이다가 어

14. 김정환·박명선·손병섭·한정규·정종천 공저, 『속초의 근·현대사』, (속초문화원, 2004), pp.29~31.

획량이 줄고 콘도미니엄들을 포함한 대형 숙박지, 교통망 등의 관광 인프라의 확충으로 인해 국내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변모하였다. 근·현대사에 있어 속초는 이처럼 다양성이 존재하는, 아직도 과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속초만의 색채가 존재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속초의 지역성이나 특수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시작점은 속초가 속초시로 승격된 이후 관(官)이나 관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5년 설립된 속초문화원이 대표적이다. 전국 각 행정구역에 포함하여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정부의 ‘지방문화원 지원법’ 시행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단위 사업들 중 ‘도시변천사 사업, 향토사 안내서 발간 사업, 향토사연구소 운영 사업’ 등을 통해 속초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속초문화원이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펴낸 대표적인 간행물로는 ‘속초문화(1984년을 시작으로 매년 발간)’이 있으며, 향토자료로는 ‘속초의 민속, 속초의 지명, 속초의 금석문’ 등 40여종, 문화발간물은 ‘속초 도리원 농악, 속초 도문농요, 속초의 근현대사 시간여행’ 등 30여종, ‘속초시사’ 등이 있다.¹⁵

2)속초학 연구의 방향성

속초학 연구의 방향성은 먼저 ‘역사성을 기반으로 사회·문화적 특징, 시대적 특수성과 사회성이 미친 영향 등을 주요 변인으로 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속초가 지니는 특수성은 무엇보다 시대성으로 인

15. 속초문화원 홈페이지 참조.(www.sokcho-culture.com)



<옛 청호동·갯배 전경>



한 다양성이 만들어 내는 사회, 문화·예술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호동, 실향민 축제, 속초사자놀이, 실향민 음식’ 등은 ‘한반도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 낸 속초만이 지닌 독특한 사회·문화이며, ‘철독길(동해북부선), 1·2·3·4구 등의 행정구역, 대포만세운동’ 등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바탕이 된 유산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지역학 연구방법론인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多) 학문적 접근과 이를 통한 연구방법론이 세워지고 이를 토대로 한 결과물 등이 나와야만 속초학이 학문적 영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전문성’, ‘예산 지원’, ‘속초학 연구를 위

한 전문기관 운영’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

3)속초학 연구의 문제점 및 지향점

속초학 연구 진행과 발전을 위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전문성 부족’이다. 현재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속초시립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속초학 연구는 ‘연구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는 그동안 정부를 포함한 관에서 발주하는 공모사업, 속초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도시변천사 사업>, <향



<2020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회의>

상근'으로 다른 직업군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향토사연구위원들이 진행하는 속초에 대한 연구는 '시간적으로 가능할 때', 혹은 적은 예산으로 인한 '재능기부·열정페이' 수준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환경으로 인한 사업의 전문성 부족은 속초학의

토사 안내서 발간 사업> 등의 속초학 관련 책자 발간 등을 진행하여왔지만 연구 범위나 규모, 전문성 면에 있어 한계가 있다.

향토사연구소 인적 자원 대부분이 속초학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근 연구원'이 아닌 '비

발전과 연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속초학 연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 내 관련 인프라의 부족이다. 서울학연구소, 안동학연구소, 부산학연구소, 강원학연구소, 춘천학연구소를 포함한 타 지역 연구소의 경우 지역학 연구를 공동 수행하거나 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대학들이나 타 연구기관들이 존재하는 반면 속초의 경우에는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 전문기관들이 전무(全無)하여 지역학 연구에 있어 어려운 환경에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속초학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속초학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속초학연구소 설립·운영'이다. 속초학연구소의 설립은 학문적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박사급 연구원들과 석사급 연구보조원 등의 전문 인력,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을 통해 속초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직업군

이름 (영문이니셜 표기)	직업군
K	전)공무원
C	작가
L	모 단체 사무국장
J	모 단체 회장
K	교사
H	모 기관 사무국장
J	언론사 기자
J	공무원
H	공무원
J	공무원
K	공무원
K	모 단체 팀장
L	언론사 기자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학 연구를 위해 전문적인 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며 지역의 자료 수집 및 연구,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의 확대 및 전문성 심화 등을 이루는 등, 이미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여 적지 않은 자료와 결과물들을 축적하고 있는 점은 속초와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연구원의 강원학연구센터'와 '춘천문화원의 춘천학 연구소'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센터장, 연구기획팀, 문화사업팀에 총 7명이 근무하며 별도로 대학교수 등의 학자들 및 행정가들이 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10명), 자문위원(15명)을 두고 있다.

강원학연구센터가 운영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표 1>과 같다.¹⁶

춘천학연구소는 춘천문화원내에 부설로 2019년에 설립되었다. 연구소는 기획·학술·문헌·기록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춘천의 역사, 문화, 자연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연구·교육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강원대학교와 협업, 대학교내에 '춘천학강좌'를 설치·운영하여 춘천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역할도 함께 수행 중이다.¹⁷

6. 맺는말

- 속초학 연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속초학 연구의 필요성 중 가장 우선 되어야 할 점은 '속초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속초는 다른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다양성과 특수성이 함께

16. 강원학연구센터 홈페이지 참조.(www.gangwonstudies.re.kr)

17. 춘천문화원 홈페이지 참조(www.ccmunhwa.or.kr)

<표 1> 강원학연구센터 주요사업

주요사업	세부사업
강원학 연구기획 및 기초연구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강원학 토대 연구사업 및 기획연구 추진 -강원학 연구총서, 자료집 발간 -공기업 대행사업 및 국책·지방정부 정책사업 지원
연구자·연구기관 네트워크 형성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교류 -강원도 내 강원학 연구기관과 연구협력 추진 -전국 시도별 지역학 정기교류회를 통한 정보 교류 -관련 연구기관 간의 학술 연구·교류 협정 추진
열린 강원학 채널 구축	-강원학 아카데미 운영 -교양서적(지식총서)발간 -학술대회 개최(강원학 대회, 포럼, 세미나 등) -소식지 '강원학나라' 발간



<2019 속초만세운동 속초여고 특강>

공존하는 도시이다. 정량적 지표로 보면 인구 8만의 소규모 ‘시(市)’에 불과하지만, 한 해 많게는 2,000여만 명의 유동인구가 존재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동시에 폐쇄성보다 개방성의 성격이 앞선다고 이해되기도 한 도시이다.

‘실향민 도시, 관광도시, 수산·어업도시, 설악산’ 등 속초를 대표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상징성(symbol)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상징성들이 속초의 정체성을 이루는데 있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러한 상징성들에 영향을 미친 변인(變人, variables)¹⁸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지역학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상징성들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통합적 연구를 통해 ‘속초의 정체성’을 세

우는 것이 속초학 연구의 주된 목적이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속초의 역사와 정체성은 진행 중이며 변화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역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것이다. 이를 위한 학문적인 연구 자체가 향후 미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있어 일련의 과정이며,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속초의 정체성은 도시를 구성하는 인적자원 중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심을 지니거나 혹은 향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정신적 공동자산이다. 그러기에 속초학 연구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속초학 연구를 주도하는 기관은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이를 지역의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속초의 정체성 이해를 통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속초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 이해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개체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낮은학급급

18. 주로 사회과학 분야 연구방법론에서 사용하는 용어.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의미하며, 성격에 따라 독립변인(獨立變人, independent variables), 종속변인(從屬變人, dependent variables), 개입변인(介入變人, intervening variables)으로 나뉜다. 독립변인은 연구대상현상을 불러 일으키는 일단의 원인을 지칭하며,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에 의해 초래되는 현상(결과)를 의미하고, 개입변인은 독립변인 이외의 변인으로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개념들로 통제변인 혹은 간섭변인으로도 불리운다.

별(초등학교, 중학교)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¹⁹

30여 년간 공백기를 거쳐 1991년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²⁰ 시행은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19. 2019년 속초문화원이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속초만세운동’사업을 진행하며 속초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관련 출판물을 제작, 배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뮤지컬 공연을 진행하였다. 당시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 의견을 참고로 하였다.

20.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집권한 이후 전면 중지되었다. 이후 30년간 중앙집권 시대를 보내다 1991년에 이르러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된다. 하지만 임명제 단체장체제가 존속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있다가, 1995년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되었다.(100.daum.net, 지방자치제-Daum 백과사전 참조)

행정제도의 변화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식 변화 역시 그러하다.

주민들의 주인 의식 속에는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이를 소중히 하는 자긍심이 존재하며, 이것이 ‘속초학 연구의 필요성’ 중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감을 가져본다.

속초문화

<주요 참고문헌>

- 김광역 외, 『문화의 다학문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김정환 외, 『속초의 근·현대사』, (속초문화원, 2004)
 김정환 외, 『한 권으로 읽는 속초문화유산』, (속초문화원, 2005)
 김재민, 『미국문화에 얽힌 미국영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2)
 김웅진, 『정치학방법론서설 : 경험과학연구의 논리와 기준』, (명지사, 1992)
 유종선, 『한 권으로 보는 미국사 100장면 : 신대륙 발견에서 LA 흑인 폭동까지』,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5)

속초의 지역문화, 그리고 교육

박명선 (대진고등학교 교사, 전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또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의미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아울러 지역 문화는 사회 일반의 특정한 지역에서 형성되고 발달한 문화로 정의한다.

속초의 지역 문화는 바다를 바탕으로 한 어촌 문화와 설악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산촌 문화가 결합하여 지방색을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평지의 전답을 근간으로 발달한 농촌 문화가 가미되고, 한국 전쟁에 의해 피란민들이 정착하면서 실향민 문화가 유입되어 기존 문화에 접목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는 여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SNS 발달과 시의 정책에 힘입어 관광 문화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커다란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속초의 지역 문화는 이렇게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축적된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 교육은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속초 지역 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문화 교육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속초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수업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일부 교사가 제도권 교육으로 끌어들여 열어가려고 시도하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속초시는 조선시대까지 양양도호부에 속해 있다가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그 후 1937년에 면사무소를 속초리로 이전하고 1942년에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가 1963년에 시로 승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사적 배경이 그리 길지 않다.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정리를 관장하는 것이 문화원의 사업 목적인데 ‘속초문화원’은 1965년에 설립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문화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속초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늦게 시작되어 축적된 자료가 풍부하지 않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도 늦게 이루어져 이제 자리를 잡아 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초시의 역사를 놓고 문화 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우선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사회나 학교 현장에서 문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데 속초의 현실은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문화 교육은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 기관 그리고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조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속초는 문화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체계화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육 시스템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들어 개발 위주의 행정이 진행되면서 속초의 유형 문화가 사라져 정체성을 잃어가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대포항의 개발로 속초하면 대포항이라는 등식이 옛말이 되었고,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해안선이 사라

지고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영랑동 바닷가를 중심으로 80년대까지 남아 있던 근대문화유산들도 새로운 건축이 진행되면서 사진 속에만 남아 있는 추억이 되었다. 우후죽순으로 세워지는 초고층 아파트는 바다 경관을 막고 설악산 조망을 불가능하게 하여 삭막한 도시로의 변모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속초의 뿌리를 교육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교육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지방 자치 시대에 있어 지역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화제이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지역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면 자기 뿌리를 찾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자신이 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애郷심을 고취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또 타지역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공감대와 공동체 의식은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고 지역 주민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여 건강한 지역 문화를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 문화 교육은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 젊은 학생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사시던 과거의 자연 환경이나 생활 문화를 접하면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어른들이 사시던 과거를 소재로 한 대화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와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고 가족 사랑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컴퓨터 중심의 문화가 빠른 속도가 발전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태중에서부터 디지털 매체를 접하며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해하고 게임이나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으로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습 의욕이 떨어져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역 문화 교육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교육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서 잠시 손을 떼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조화로운 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지역 문화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 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문화를 홍보하고 교육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간혹 자치단체장이나 관련 기관의 장이 바뀌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충분한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경제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 문화와 관련된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 해마다 편성되는 액수가 일정하지 않아 이미 추진되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이며 문화에 대한 투자는 다소 늦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한번 인지도가 올라가면 빠른 속도로 전파되

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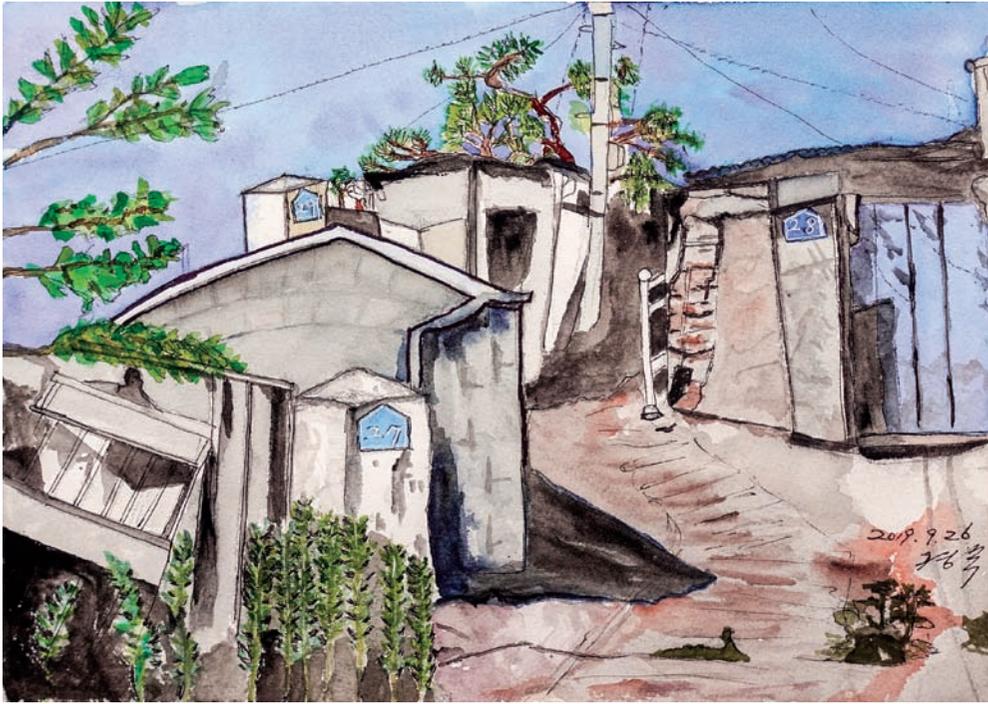
문화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진을 발굴하여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요즘 지방자치 단체별로 문화 해설사를 육성하여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편이다. 보수적인 측면도 충분하지 않고 활동도 정기적이지 아니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안정성 있는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기르기 위해 교육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선진지 지역 시찰이나 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여 모범적인 운영 방법을 고안하고 벤치마킹하여 강사 양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우수한 강사진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교육자, 피교육자, 교육 콘텐츠의 3요소가 갖추어지고 교육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교육용 콘텐츠 개발은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콘텐츠 개발은 옛것을 찾아내고 체계화하여 정리하는 작업부터 이루어져 한다. 그러기 위해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발굴하는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때 옛것만을 고집하는 묵수(墨守)를 주의해야 한다. 묵수(墨守)는 자칫 인습의 답습 수준에 머물러 미래지향적 시대 흐름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속초문화원’은 설립 이래 약 50여 년간 활동해 오고 있다. 그간 향토문화 연구사업, 향토문화 교육사업, 향토문화 전승사업, 향토문화 진흥사업 등 네 가지 역점사업을 설정하고 각 사업별로 다양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속초문화재단’이 출범하였다. 재단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문화 행사, 문화콘텐츠 발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문화관련 공모사업 등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속초 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속초문화 활동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집단 지성을 발휘한다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지역 문화 교육은 담당 기관의 치밀한 기획 아래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고유 문화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더욱 공고하게 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 홍보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또한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맺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속초문화



김경숙 작 · 속초 중앙시장로 7길 언덕 · Watercolor on paper



이명숙 작 ·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지느러미' · Watercolor on paper

속초문화원 365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속초문화원 제28기 향토문화학교

향토시안내서 발간 사업

2020 속초문화원 공모사업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위탁관리)

문화시민학교 교육강좌 운영사업

2020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역관광 아카데미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

2020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올해 청소년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역문화자원 활용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다. 속초의 지역문화자원(역사와 문화 등)과 도서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우리문화의 소중함과 지역 문화 정체성 함양을 위해 속초시다함께돌봄센터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소 되었다.

• 지역문화자원 활용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2020. 11. 30. 기준)

향유기관	향유인원	진행강사	회차	비고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	342명	2명	40회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속초의 역사적 변천과 시민의 삶, 그 공간이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사진, 구술, 자료집 등으로 구현하여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기록하고자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을 시작하였다. 올해는 영랑동 · 장사동 사람들과 도시역사의 가치를 되새겨보기 위한 작업으로 『속초도시변천사 I, 영랑동 · 장사동』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속초도시변천사기록사업

- 기 간 : 2020년 6월~12월
- 참가자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김정환, 정종천, 한정규, 최영택)
- 자료집 발간 : 『속초도시변천사 I, 영랑동 장사동』 (300부)



제28기 향토문화학교

속초문화원 지역의 전통 있는 평생교육강좌로 시민의 문화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했다. 강좌는 '동요 테라피, 커뮤니티 댄스, 사물, 무용, 한지, 민요, 전통매듭과 보자기, 웰빙라틴댄스, 천문학, 돈돌라리 등 10개 강좌를 운영했다. 예술의 개입을 통해 코로나 19로 갇혀있던 심신의 치유와 삶의 활력, 문화적 자부심, 창의적인 자아발견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로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



• 문화학교 일정

(2020.11.30. 기준)

강좌명	수업내용	강사명	수업장소	수업횟수	향유인원	비고
동요 테라피	동요를 통한 치유교실	이은미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	7	26	
커뮤니티 댄스	나이와 무용 시니어와 커뮤니티 댄스	이태림	문화사랑방	21	263	
사물	사물악기습득	박치영	갯마당	42	314	
무용	한국무용	김민희	문화사랑방	39	104	
한지	한지공예	이진향	문화사랑방	24	85	
민요	경기민요 등	김현섭	문화사랑방	41	146	
전통매듭과 보자기	규방공예, 바느질	박진선	문우당서림	21	153	
웰빙라틴댄스	라틴댄스 기초	최덕성	속초시 댄스스포츠연맹	42	284	
천문학	별이야기	최원복	남부새마을금고	13	72	
돈돌라리	돈돌라리	김민희	속초예술종합교육원	18	121	
			계	268	1,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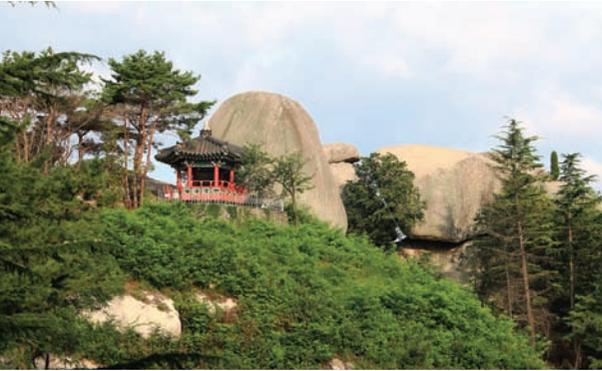
향토사안내서 발간 사업

한국전쟁 이후 이북 실향민들과 어업활성에 따른 경제 유민들이 대거 속초에 정착, 인구 5만 이상의 시로 승격해 공공장소와 거주형태, 문화, 경제, 의료 등 다방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속초의 변화상을 역사교과서 기술방식이 아닌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속초의 미래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본 사업은 향토사연구위원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리 등 콘텐츠를 선정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향토사안내서를 속초문화원 홈페이지에 E-BOOK으로 제작하여 지역향토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향토사 안내서

- 기 간 : 2020년 7월~12월
- 참가자 : 최재도(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이수영(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조성혁(사진작가)
- 내 용 : 『속초, 그때 그곳이 지금은...』(200부)



속초문화원은 2020년 정부·기관 등에서 공모한 다양한 사업에 응모·선정되어 속초시의 예산절감, 일자리 창출, 속초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20 속초문화원 공모사업

사업 주최 기관	내용	사업기간
강원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인생나눔교실 3355인생나눔 활동사업 거점기관 -속초시 관내 3개운영단체 -인제군 관내 1개운영단체지원	2020.7.~12.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2020 지방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 길위의 속초학 특강 2회, 공연1회, 탐방(체험) 3회 진행	2020.5.~11.
속초시 민원토지과	속초시 국가기본도 표기지명 조사 -지명세부내용조사	2020.2.~5.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위탁관리

속초문화원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 속초도문농요의 지속적인 재현과 보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속초시 상도문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속초도문농요보존회는 연간 5회 총연습과 전승교육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총연습 및 전승교육 활동을 축소하였으며, 3차례의 공연 활동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연합회 및 속초문화재단을 통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속초도문농요전수관은 도문농요 연습 및 공연 등 체계적인 전승활동 뿐만 아니라 상도문 문화마을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2020년 생생문화재 및 각종 공연연습 장소대관 등 지역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 2020 속초도문농요 공연활동

공연 일시	내용	장소	관람객
1회 10월 31일	찾아가는 강원의 소리와 흥	강릉단오제 전수회관	50명
2회 11월 06일	무형문화재 공개공연(1차)	도문농요전수관 야외광장	30명
3회 11월 21일	무형문화재 공개공연(2차)	시립박물관 야외 특설무대	60명

■ 2020 속초도문농요 연습 활동

- 일 시 : 1월 ~ 12월
- 연 습 : 소리연습 5회, 총연습 5회, 사물놀이 연습 4회
- 장 소 : 속초도문농요전수회관
- 참가자 : 속초도문농요보존회원 50명



속초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예술진흥 활동으로 문화시민학교 ‘행복한 노래교실, 스케치로 만나는 속초, 춤추는 시민 신나는 속초, 고고장구&퓨전난타, 자연치유 원예교실, 라인댄스’ 6개 강좌를 운영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학교 수료·전시·발표회는 취소되었다.

문화시민학교 교육강좌 운영사업

■ 문화학교 운영

- 교육기간 : 2020. 03 ~ 12

(2020.11.30. 기준)

강좌명	수업내용	강사명	수업장소	수업횟수	향유인원	비고
행복한노래교실	가요 및 트로트 등	홍 철	남부새마을금고	33	863	
스케치로 만나는 속초	생활예술미술수업	정봉재	문화사랑방	41	292	
춤추는 시민 신나는 속초	댄스스포츠	이명우	속초시댄스 스포츠연맹	42	403	
고고장구&퓨전난타	고고장구, 난타	한명옥	두두리연구원	47	219	
자연치유 원예교실	원예기초	김순영	호미 원예센터	19	44	
라인댄스	라인댄스 기초	이태림	문화사랑방	47	630	
			계	229	2,451	



2020 학교문화 예술교육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정착과 전수사업을 이끌어 내며 학교별 특성화 과목을 지정 운영하여 문화예술 과목의 편향성을 지양하고, 학교별 다양한 문화전수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일반 교과 수업에서 미치지 못하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전통예술 학습을 통해 자기 계발과 더불어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활동이다.

속초문화원은 초등학교 대상 전통문화교육사업인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2008년부터 주관하였다. 올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속초초-취타대 수업을 취소하여 관내 5개 초등학교에서 진행하였다.

‘청호초-속초사자놀이’, ‘온정초-속초도리원농악’, ‘설악초-속초도문농요’ 등의 지역문화자원과 ‘대포초-국악관현악단’, ‘청봉초-소리극’같은 다양한 국악 장르를 초등학교와 연계하는 문화예술교 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향상과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데 많은 기여했다.

■ 문화예술교육

- 교육기간 : 2020년 3월~12월

(2020.11.30. 기준)

학교명	담당교사	강좌명	지도 강사	수업 횟수	향유 인원	교육내용	비고
대포초등학교	곽미서	국악관현악	박치영	19	391	합주, 지휘	
			최수미	19		타악, 모듬북	
설악초등학교	정광빈	속초도문농요	김영순	16	368	속초도문농요 및 농사풀이	
			임소연	16			
온정초등학교	한수연	속초도리원농악	박치영	13	507	가락, 소고	
			최수미	13		상모, 무동	
청봉초등학교	장혜정	소리극	김헌섭	18	486	민요, 안무	
청호초등학교	신정인	속초사자놀이	임희영	15	210	통소	
			김헌섭	15		민요	
			황승연	15		사자놀이	
			계	159	1,962		



지역관광 아카데미

지역관광아카데미는 관광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역관광해설에 대한 이론적교육(4회차)과 언택트관광을 대비한 동영상제작(4회차) 등 사전체험교육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 개별기법의 선도 사례가 되는 국내 현장답사(2회차)를 병행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분들에게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기존에 들을 수 없었던 형태의 아카데미가 진행된 것이 수강생들에게 좋은 평을 받게 되었다.

사업목표로 세웠던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 및 DMO 조직육성,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랜선관광 콘텐츠 사전체험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었다.

일정	교육내용	강사명
1강(11/2, 월)	오리엔테이션+여는강의(권순석-PM)	권순석(문화관광해설사)
2강(11/4, 수)	관광행태의 변화와 관광해설의 변화	백경미(지역다움)
3강(11/9, 월)	문화관광해설사 표준해설집의 이해와 지역 사례	권정삼, 이승미, 안현주 (파랑달 협동조합)
4강(11/11, 수)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현장답사 (바다향기로, 아바이마을, 속초시시립박물관 해설 참가)	
5강(11/16, 월)	강릉시 문화관광해설 현장답사 (강릉선교장, 강릉대도호부관아, 참소리박물관 해설)	
6강(11/18, 수)	조별 스토리보드 구성 및 발표. 멘토링	
7강(11/24, 화)	동영상제작 오리엔테이션 및 기초교육	주상권, 김학연 (빛나는 날들)
8강(11/25, 수)	동영상제작 사례 및 동영상 제작을 위한 실습 (셀프해설 영상 촬영)	
9강(11/30, 월)	동영상 강의 및 공유회 (셀프해설 영상 공유/소감 공유/향후 일정 공유 등)	
10강(12/2, 수)	동영상 강의 및 공유회 (셀프해설 영상 공유/소감 공유/향후 일정 공유 등)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

전국 유일 25년 역사의 년례 대회로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육성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지속성 유지 및 참가팀의 무대공연 기회를 위해 제25회 사물놀이경연대회가 10월 15일 화천 봉어섬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무관중·교차 경연 방식으로 경연실황을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라이브(Live) 방송되어 언택트(Untact) 시대에 변화된 문화활동의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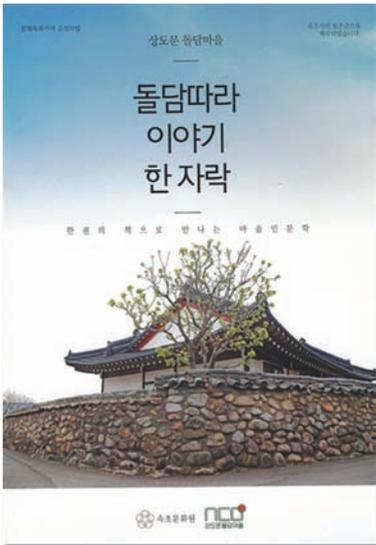
강원도 내 사물놀이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속초문화원 사물동아리 여울당은 영남 사물놀이로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하였다.

■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 “세대 공감, 자연&사물 올림의 하모니” 개요

- 일 시 : 2020. 10. 15(목), 11:00
- 장 소 : 화천 봉어섬
- 공연자 : 속초문화원 사물반 ‘여울당’ 11명
- 결 과 : 속초(여울당) ‘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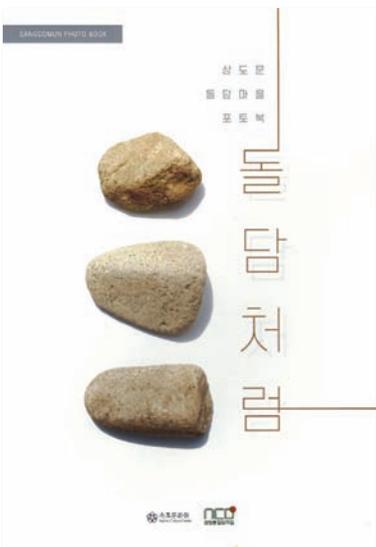
2020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 『돌담따라 이야기 한 자락』

- 발행일 : 2020년 5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기획 : 김인섭
- 글 / 사진 : 엄경선
- 출판 : 하늘공방

5백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속초의 종가집인 상도문 마을의 역사와 정신문화의 선인들, 전통적으로 주민들이 지켜오는 생활 문화를 엿 볼 수 있는 인문학책이다.



■ 『상도문 돌담마을 포토북 <돌담처럼>』

- 발행일 : 2020년 5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기획 : 김인섭
- 디자이너 : 설악해디자인
- 포토그래퍼 : 청봉사진회
- 출판 : 설악미디어

1980년대까지 한문서당이 있을 정도로 전통마을의 모습을 잘 간직한 상도문 마을을 지역 사진작가 동호회인 청봉사진회에서 일년간의 기록사진으로 마을을 홍보 할 수 있는 포토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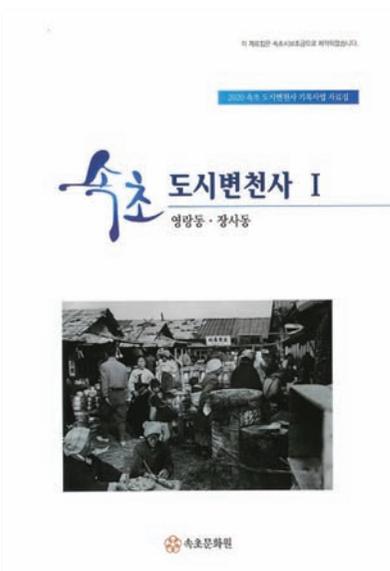
2020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 『길위의 束草學, 속초의 길』

- 발행일 : 2020년 10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편집인 : 양용석
- 저자 : 이수영, 장재환 공저
- 출판 : 설악미디어
- ISBN : 979-11-968290-2-5

2020지방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날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이책은 우리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속초의 역사, 사회, 문화, 예술 등을 총망라한 자료집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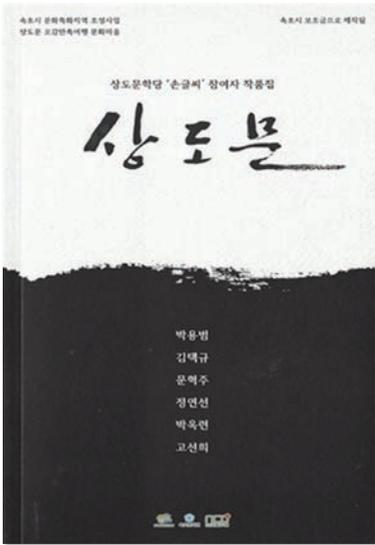


■ 『속초도시변천사 I 영랑동 장사동』

- 발행일 : 2020년 11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김계남
- 편집인 : 한정규
- 저자 : 김정환, 한정규, 정종천, 최영택
- 출판 : 하늘공방
- ISBN : 979-11-965930-6-3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자료집 인 이책은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기록하고자 “영랑동 · 장사동 사람들과 도시역사” 등을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간하였다.

2020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 『상도문학당 ‘손글씨’ 참여자 작품집 <상도문>』
- 발행일 : 2020년 11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김계남
- 편집인 : 전옥
- 출판 : 설악미디어 • ISBN : 979-11-968290-4-9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상도문 오감행복여행 문화마을 사업 프로그램 중 상도문학당 손글씨 참여자들의 작품을 엮은 작품집이다.



- 『속초, 그때 그곳이 지금은』
- 발행일 : 2020년 12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김계남 • 편집인 : 양용석
- 저자 : 최재도, 이수영 공저
- 사진촬영 : 조성혁 • 표지삽화 : 김상률
- 출판 : 설악미디어 • ISBN : 979-11-968290-3-2

향토사안내서 발간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이책은 지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속초의 변화상을 역사교과서 기술방식이 아닌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속초의 미래들에게 전달하도록 정리한 속초 향토사안내서이다.

2020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 「시민의 손으로 그린 속초」 엽서집

- 발행일 : 2020년 12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속초문화재단
- 저자 : 어반스케쳐스 속초
- 발행인 : 김계남 • 편집인 : 정봉재
- 출판 : 하늘공방

미술교실에서 만난 미술동호인들이 야외스케치 등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정감있는 동네를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동아리 ‘어반스케쳐스 속초’를 결성하여 생활예술인들의 결집된 모습을 보이고 스스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한다.



■ 「속초문화 제36호」

- 발행일 : 2020년 12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김계남
- 편집인 : 양용석
- 출판 : 하늘공방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 탁명원 (속초문화원 이사)

속초문화원 탁명원 이사는 지난 5월 5일 '매월당 문학상'을 수상하였다.(시 부문 본상 수상)

속초문화원 탁명원 이사는 2020 강원문화대축전에서 문화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강원도지사상을 수상하였다.



■ 문은희 (속초문화원 이사)

속초문화원 문은희 이사는 지난 4월 30일 2020년 '속초시 명장'으로 선정되었다.(식품가공 부문)

9월 1일 (사)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로부터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인으로 선정되었다.

11월 16일 2020 강원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이덕우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강사, 속초예총 미술협회 지부장)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이덕우 강사는 2020 강원문화대축전에서 문화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강원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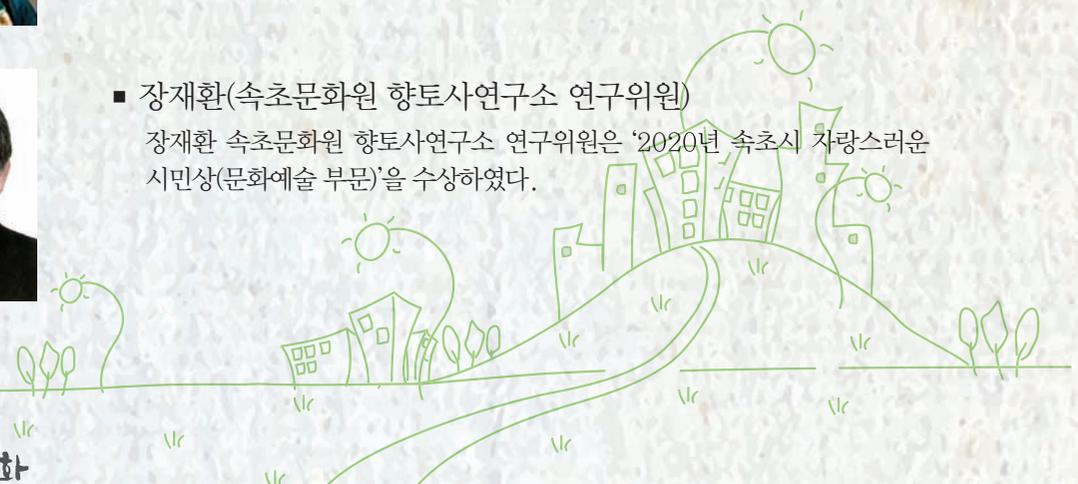
■ 이태림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강사)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이태림 강사는 2020 강원문화대축전에서 문화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하였다.



■ 장재환(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장재환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은 '2020년 속초시 차랑스러운 시민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하였다.



속초문화원 가족 동경



■ 김만중(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김만중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6월 24일 제30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박무웅 전(前) 속초문화원 원장

속초문화원 제13대 원장(2013~2017)을 지낸 박무웅 돌감자장학회 회장은 현재 속초시 상도문에서 지내며 젊은 시절부터 해온 장학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시사뉴스저널 Hot Interview>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여 박무웅 회장이 지니며 살아온 철학을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어려운 형편에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품은 희망을 놓지 말고 우직하고 묵묵하게 행동으로 옮겨주기를 바란다. 긍정적인 마음과 생활이 인생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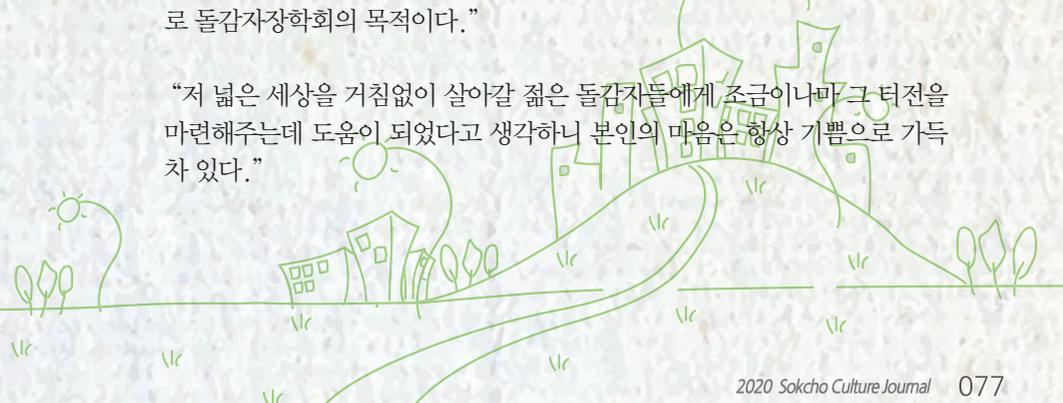


“1975년 10월 3일,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시절에 강화도 마니산에 올라가 장학사업의 큰 뜻을 마음에 품고 돌감자장학회의 첫 발을 내디뎠다.”

“돌감자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특히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학생들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 자세로 생활을 이끌기 바란다.”

“척박한 산비탈 돌 틈 사이에서 어렵게 자라 예쁜 꽃을 피우는 감자꽃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실을 맺어 배고픔을 달래주는 양식이 되는 돌감자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끈끌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자는 게 바로 돌감자장학회의 목적이다.”

“저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갈 젊은 돌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터전을 마련해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본인의 마음은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정경희 작 · 속초 중앙시장 · Watercolor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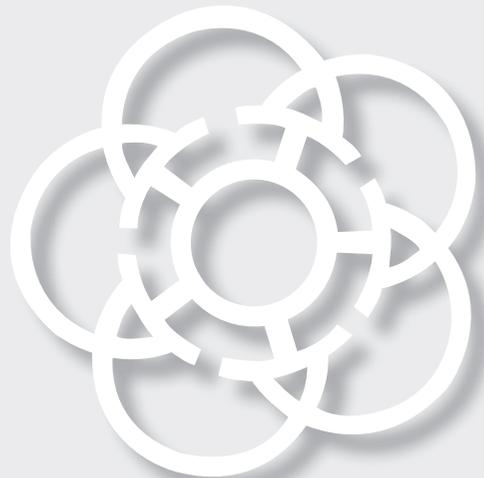


배명옥 작 · 속초항 · Watercolor on paper



향토사연구위원 기고

- 속초문화재단 출범,
‘문화도시 속초’를 향한 날개를 펴다
- 속초사잇길 걸어보고서



속초문화재단 출범, ‘문화도시 속초’를 향한 날개를 펴다

한정규 (속초문화재단 사무국장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2020년 속초문화재단 사업현황’

속초문화재단 주요업무는 문예진흥팀은 문화정책연구개발과 문화사업 개발 및 시행, 공모사업 기획 및 지원, 문화예술창작사업,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담당하며, 공연사업팀은 지역콘텐츠 기반 문화사업 발굴 및 개발, 거리예술제 및 버스킹, 브런치 콘서트, 실향민문화축제, 공연과 전시 등을 맡고 있다.

속초문화재단은 고유사업 외에 2020년 속초시로부터 위탁받은 ‘실향민문화축제’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5월말에 개최 예정이었던 ‘실향민문화축제’는 코로나-19에 의해 비대면 행사까지 준비하다 여러차례의 연기 끝에 코로나 확산으로 행사를 전면 취소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위축된 속초내 문화예술단체 및 전문공연단체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속초를 찾은 관광객에게 속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2020 속초





문화버스킹'행사와 코로나 시기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직장내 건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 힐링치유콘서트', 팬데믹 상황에서 공연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단체를 위한 '문화예술공연 온라인 중계 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문화사업을 기획 운영하였다. 또한 지역내에서 활동중인 다방면 문화예술인을 찾고 직접 등록하는 '문화예술 DB'구축사업까지 펼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구축해갈 예정이기에 아직 등록하지 예술인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부분이다.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현황'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문예진흥팀내에 문화특화지역추진팀을 두고,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가치 확보'와 '시민의 문화참여를 통한 속초 중심의 도시문화 형성'을 '문화다양성 확보 및 창

조적 융복합을 통한 문화생태계 구축'과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이라는 2020년 추진목표를 가지고 '문화도시 기반사업', '시민문화 활성화사업', '문화도시 특화사업', '법정 문화도시 지정준비'의 주요사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란 그 지역고유의 문화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정주 가치를 높여 그 도시를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첫째,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싶은 도시 속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둘째,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문화도시 속초'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의제 설정', 셋째, 각 의제들을 실행하기 위해 속초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는 '의제 추진', 넷째, 속초시 자체를 문화브랜드로 성장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 속초 완성' 단

계로 마련하고 있다.

속초문화재단은 팬데믹 상황에서 그 변화와 요구에 대처하면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시민문화활동가 모집, 문화예술단체간담회, 발코락 영상 수집전, 손 끝에서 열리는 새로운 속초 공모전, 속초 아트 컬렉션, 청년 네트워크 아카데미, 8개동 주민자치센터 문화특화조성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들의 함께 문화도시를 조성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단은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시민문화활동가’ 모집을 실시하여 관내외 20대~70대까지 다양한 계층 100명을 모집하였고, 시민문화활동가와 시민대상으로 ‘살고 싶은 속초’ 공모전을 펼친 결과 71건의 접수, 그중 7건의 사업을 전개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문화도시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 시민이 함께 참여



하여 만드는 ‘소셜살롱 속초공감’이라는 소규모 모임을 통해

1) 문화도시 속초 시민들을 위한 소식지 발간을 목적으로 구성안을 논의, 출판 계획을 세우고 문화활동가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원고를 쓰며 편집하는 ‘소식지 오케이속초’. 지금까지 격월로 2권을 제작·배포하였으며, 현재 3권째 준비가 한창이다.

2) 속초의 특색을 담은 특별한 기획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추진해가는 ‘굿즈 개발’은 아이디어를 통한 시제품 개발이 완성단계에 있다.

3) 속초의 과거 사진을 발굴하고 현재의 모습을 새롭게 촬영해 변화해가는 속초의 모습을 비교하고 기록하는 ‘속초 타임머신’모임과 ‘도시 기록가’ 12인의 활동,

4) 속초의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지역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향토사 중에서 전승되어야 할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웹툰 제작’ 모임,



5) 속초에 거주하는 토박이, 이주민, 임시거주자가 서로 교류하며 속초살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복세, 해복세! & 라이프스킬 아카데미’ 모임.

6) 속초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자유로운 거리공연과 예술인들이 상주하는 문화예술 거리로 만들어,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예술인들에게는 활동 거점을 제공함으로써 제2의 아바이, 아마이 마을의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아By, 아My’ 모임.

7) 속초 대표 메뉴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을 선정해 현장조사 및 책자를 발간하는 ‘속초의 맛’모임이 『마솥다! 속초』를 발간했다.

2020년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기반사업 마련이면서 그 중심에 속초시민을 담고자 노력 하였던 한해였다. 본 사업은 시민 스스로 ‘내가 살고 싶은 속초’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고, 미래의 속초에 필요한 문화적 요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자신의 의견을 다른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이다.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문화도시 기반사업 정비와 시민문화 활성화사업 확대, 문화도시 특화사업 추진과 법정문화도시 지정 신청 등의 프로젝트가 남아있다.

이제 내년이면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3년 차에 접어든다. 그동안의 경험과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속초시에서 2021년에 법정문화도시 사업에 도전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 5년간 200억이라는 문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도시란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 하는 도시'를 가리킨다. 문화도시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 속초에도 '문화도시 속초'를 향한 비상 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을 재단과 속초시에서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여 속초의 미래를 만드는 역할과 참여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단의 역할’

문화재단을 간단히 살펴보면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공익법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지자체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법적 근거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문화재단은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꾸준히 설립, 2017년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은 전성기를 맞이하여 2020년 현재 90개에 달한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의 행정체계에 따라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으로 구분되고 각각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한광연)와 전국 지역문화재단연합회(전지연)를 통해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기초문화재단은 2020년 현재 서울 21개, 경기·인천 19개, 충청 8개, 전라 9개, 경상 22개, 강원 11개 등 총 90개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단위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역할이 다소 격차와 차이를 두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그 설립기준에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중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고, 경제성 분석도 기관의 수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과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분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이 핵심 역할이자 기능인데, 현재 설립되어 운영중인 많은 재단의 역할을 보면 지자체 문화예술기반시설운영, 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사업 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들이 전문예술창작과 시민문화향수 증진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문화사업으로 분류되는 각계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관과 민의 중간적 역할과 기존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각자 고유사업과 그 외에 산재된 공통분야 이외의 역할 기준점이 애매한 부분도 고려하면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 현입장이다.

지역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특화된 문화사업을 펼치는 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진흥과 지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맥락이다. 앞으로 문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떤 동기를 부여하며 어떠한 계기를 제공할 것인지는 신생 속초문화재단으로서 고민이며 숙제이지만 속초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굳건히 다져야 할 것이다. **속초문화**

속초사잇길 걸어보고서

이수영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즐거운 발걸음만 있으면 누구나 동참이 가능한 「속초사잇길 걷기」는 사실 기획단계에서부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신 즐거운 발걸음으로 우리 속초의 면면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골목상권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방향이었다.

제주도와 함께 우리나라 관광1번지로 명성이 드높지만 전체 면적 105.72km² 중 국립공원 설악산을 빼면 속초시의 가용면적이 38km²밖에 되지 않을 만큼 협소하다. 이 좁은 지역에 속초를 찾는 관광객이 한해 1천7백만명에 이르니 주말 주차전쟁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70년대 대중교통이 없을 때 학생들의 등하교는 발걸음뿐이었다. 물론 지금보다 도보환경이 좋았다. 주지하다시피 설악산을 빼곤 속초 전역이 반경 2~km 내에 있어 즐거운 발걸음만 있으면 오갈 수 있는 거리다.

주차장 확충이 근본적 대안 아냐

요즘 속초시가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호응을 얻고 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도 층수를 높였고 로데오거리 기존 주차장도 법면 늘리기 작업이 한창이다. 엑스포장은 물론 석봉도자기박물관 일대 주차장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주차장 확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들고나는 출입구 일대의 진출입 도로 혼잡에 있다. 주차장 법면이 많을수록 들고나는 곳에서 극심한 지·정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속초의 동서남북에 거점형 대형 주차장을 조성해 환승장치에 의해 목적인 관광지로 이동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관광지 속초에 가면 차를 주차해놓고 걸어서, 자전거로, 시내버스로, 택시로 환승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징벌적 주차요금을 징

수하는 조례도 제정하자. 이런 시스템이 정착하려면 그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는 생활실천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굳이 「슬로시티」나 「걷는 도시」니 하는 구호를 내세울 필요도 없이 정말 즐거운 발걸음만 있으면 설악산을 제외하고 속초 관내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는 도보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맑은 공기 「세일」 시대 대비해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맞먹는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고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오염을 상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정도가 도로에서 발생한다는 연구에서 알 수 있듯 1주일에 승용차를 하루만 세워놓아도 탄소를 연간 445kg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물론 환경오염은 경제와 사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구촌 협력이란 대의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전 지역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과 1시간 거리가 실현되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사러(?) 우리 속초를 빈번히 찾을 것이다. 머지않아 도래할 이 때를 예비해 즐거운 발걸음만으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일석이조 정책을 선제적으로 펴나가길 제안해본다.



1 길 코스_영랑호길

- 범바위 요
- 안죽사비
- 보경사 요
- 영랑교
- 가늑강기장 요
- 화랑도재철장
- 범바위 일순



2 길 코스_정사_영랑해변길

- 장사암 요
- 사전교
- 영랑해안길(중대카페) 요
- 속초중대 거문고섬터 요
- 동명동성당
- 속초갈리교회



3 길 코스_4복길

- 수복탑 요
- 속초교회(원종교)
- 속초시청 뒤 주차장
- 중앙시장로8길29 요
- 속초관광수산시장
- 40계단 마을 요



4 길 코스_아바이마을길

- 중앙동곶배선착장 요
- 신포선착장 -신포해변
- 설악대학교 -아름뿔곶곶배
- 유정중선장동상 요
- 정호해변
- 정호초고 옆 벼하마을 골목 요
- 옛 정호시장
- 아바이마을 메인 도로
- 아름뿔곶 곶배



5 길 코스_속초해변길

- 속초해변 송림산책로 요
- 바다랑기포 요
- 외동치항
- 대표항진양대
- 도보다리 -대표항
- 골포별산중수 열
- 이정숙 왕손만두 편향 요
- 속초해변 송림산책로 일순



스탬프 확인 지점

6 길 코스_청대산길

- 청대산 등산로 입구 요
- 정상 요
- 신라섬 요
- 정상
- 청대산 등산로 입구(왕복)



7 길 코스_청호호길

- 역스포상정탑
- 요트계류장 요
- 유람선선착장
- 코마인 -속초수협
- 설악대교
- 중앙동곶배선착장
- 청년울 요
- 청초정 요
- 역스포상정탑 일순



8 길 코스_청호천길

- 속초광장 요
- 철다리
- 노리교 요
- 경동대 앞 -서울보종 앞
- 이목리아울회관
- 재달들 -뿔벼영길
- 술박물관 요
- 국립산악박물관(등산학교)
- 속초시립박물관



9 길 코스_설악누리길

- 죽육공원 요
- 범바위막국수
- 척산마을
- 설악아구장 열
- 술길 요
- 자생식물원 왕복 요



10 길 코스_대표명품운동길

- 중도문2리 마을회관 요
- 중도문마을인길
- 떡밭재도로
- 나무남재 요
- 방죽길
- 절죽길
- 대표초고 후문
- 옛 대표항사무소 골목 요



속초사잇길은 도심 도보여행길

속초사잇길은 원주민과 실향민(정착민과 이주민), 동해바다와 석호(바닷물과 민물), 산과 바다(산촌문화와 어촌문화) 등 2개 이상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융합한 속초문화의 길이다.

2개 이상의 관계를 뜻하는 「사이」란 의미가 길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더더욱 확장되길 바란다. 속초사잇길은 산, 바다, 호수 등을 도는 10개 코스로 우리 속초의 잠재력을 살려 색다

른 관광자원을 만들려고 한다. 이 길을 통해 지역경제의 싹틔줄인 골목상권이 살아나도록 상인들과 협업할 예정이다.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민간협의회장 김동순)는 이에 따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선)과 함께 「속초시 행복교육지구 특화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 코스 기획, 안내판 설치, 패스포트 제작, 스탬프함 및 스탬프 제작 비치 등 하드웨어를 완비했고 관내 학생

과 일반시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걷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왔다.

먼저 속초사잇길 걷기를 체계적으로 이끌 안내자 양성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5기 1백여명의 안내자를 배출해 이들이 걷기반과 노르딕워킹반을 운영하고 있다. 안내자 심화교육을 통해 고객 만족을 위한 노하우도 배웠다.

또한 속초사잇길 1백만보 걷기 챌린지가 5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62일간 실시되었다. 5월 23일 출발식은 청초호길, 10월 31일 종료식은 설악누리길에서 진행했는데 속초사잇길 워크-온 참여자는 656명, 패스포트 스탬프 참여자는 500여명이었다. 11월 14일 오후 엑스포상징탑 앞 광장에서 워크-온 1백만보와 속초사잇길 10개 길 모두 달성한 108명과 2개 중 1개만 달성한 180명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식이 열렸다.

속초사잇길 1백만보 걷기 챌린지 달성을 위한 주말걷기가 12회 실시됐다. 1회 6월 6일 아바이마을길, 2회 6월 13일 청대산, 3회 7월 11일 영랑호길, 4회 7월 18일 장사영랑해변길, 5회 8월 22일 수복길, 6회 9월 26일 속초해변길, 7회 10월 17일 청초호길, 8회 10월 24일 대포만세운동길, 9회 11월 7일 영랑호길, 10회 11월 21일 설악누리길, 11회 12월 5일 속초해변길, 12회 12월 12일 청초호길이었다. 1회당 평균 50여명 참가했다.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속초사잇길 걷기 후기를 공모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응모작 38편 중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2명에게 시상했다.

향후 발전 방안

전문적인 걷기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

시해 체계적인 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스마트폰 앱인 「워크-온」에 걷기반과 노르딕워킹반의 별도 앱을 설치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속초사잇길 안내자 양성과 문화관광해설사, 숲 해설가, 생태 안내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통합해 관리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고 길과 길이 만나는 지점에서 환류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출발해서 도착하는 지점은 같게 하고 바로 옆길과 연계될 수 있는 안내체계도 확충돼야 한다.

길의 변곡점에 찍는 천으로 리본을 만들어 통일된 색으로 이미지화해 묶고 새로운 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걷기가 일상화하도록 하고 주말걷기 프로그램에 이벤트를 도입하는 방안과 스탬프를 잉크에서 철인으로 바꾸고 스탬프 함에 야광 등이나 야광 색을 입혀 밤에도 패스포트 활동하도록 하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 응대할 수 있는 종합안내센터 개설도 필요하다.

특히 안내지도를 좀 크게 만들고 촘촘히 만드는 작업도 시행하고 속초시 홈페이지와 속초사잇길 홈페이지를 연동해 걷기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내년 속초사잇길 걷기는 속초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등과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속초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속초 외곽을 한 바퀴 도는 장기 챌린지도 준비하고 특히 각 아파트단지별 워크-온 걷기 앱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치회 주관으로 진행할 계획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한 학생 관련 걷기 프로그램도 내년엔 활성화하려고 한다.

속초문화

속초 음악협회

“속초를 국제적인 음악도시로 만들고 싶은 소망, 행정 지원 및 인프라 부족 아쉬움”

- 속초 음악의 방향성 모색 -



일시 _ 2020년 10월 29일 오후 1시

장소 _ 영랑호 실만한 물가

대담 정리 - 양용석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대담자

심연흠 속초음악협회 명예회장
이은미 속초음악협회 회장
윤여순 속초음악협회 부회장
황길선 속초음악협회 감사
이민희 속초음악협회 사무국장
양용석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사회)
 ※ 사진 촬영 : 정호준 / 이인구

가을이 완연한 10월, 영랑호변 가을색들이 한낮의 햇살에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한적하고 따사로운 어느 이쁜 날에 음악협회 임원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속초 음악의 산실인 음악협회의 지난 시간들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다들 바쁘실텐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자리는 올해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할 속초문화 제36호에 ‘속초음악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음악협회 심연흠 명예회장님과 이은미 회장님, 윤여순 부회장님, 황길선 감사님, 이민희 사무국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음악협회의 공식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라고 소개하면 될까요?

이은미 - 네, 저희가 예총 소속이기도 하니까 ‘예총’이란 이름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속초 음악의 특징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음악협회 역사에 대해 말씀들을 나누어 볼까요?

심연흠 - 음악협회의 역사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연대순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제는 고인이 되신 고병준, 이재균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서 소모임으로 활동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당시 현직 교사였어요. 70년대에는 주학락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소모임이 이루어졌어요. 한편, 시에서도 ‘새마을어머니합창단’을 조직했어요. 당시 속초시 과장으로 있던 한응범 선생님이 새마을어머니합창단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흰봄합창단’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한응범 선생님이 교회 집사 혹은 장로셨는데, 그 이유로 교인분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지요.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 주학락 선생님을 회장으로 우리가 추대했어요. 교사들만의 모임이었죠. 그때까지는 음악협회라 볼 수 없어요. 이후 서서히 골격이 잡혀가다가 91년에 정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때 제가 초대 회장을 하면서, 당시에 음악평론가인 임수철 선생님과 원영백 선생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원이 30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될 수 있어 주변에 아는 분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속초 예총에 소속이 되었지요.

90년대 이후 협회로서의 기능 갖춰

사회자 - 네, 그럼 91년 이전에는 동호회 성격으로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 활동을 한 것이군요.

심연흠 -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속초시립합창단이 만들어지는데, 단장은 부시장이고 초대 지휘는 이진우 교수가 했어요. 이진우 교수님이 1년 하시고 2대부터 제

가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1999년 속초에 관광엑스포가 열렸는데, 그 해에만 13번이나 행사를 했어요. 월 1회 이상 행사를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원들이 좋아서 한거죠.

사회자 - 13번이나요?

심연흠 - 네, 13번입니다. 최다 행사이지요. 그리고, 91년도에 ‘제1회 음협(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연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설악 청소년 음악 콩쿨’을 저희들이 시작했어요.

사회자 - 그렇군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91년 정기연주회가 시작되고, 93년도에 음악 콩쿨이 시작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때부터 이 두 행사가 매년 계속됐나요?

심연흠 - 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설악 청소년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속초를 떠나 객지에 나가게 되었고 그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우연히 발견한 팜플렛을 보니 2011년도에 ‘설악 음악 콩쿨’이 제19회로 나와있고, 2008년도에는 ‘설악 청소년 음악회’가 13회로 되어있더군요. 그러던 것이 언제 소멸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자 -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네요. 그럼 지금은 음협 정기연주회만 있는건가요?

심연흠 - 그렇다고 봐야지요.

사회자 - 그럼 속초시립합창단과 그 이전에 만



들어진 새마을어머니합창단이나 흰봄합창단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심연흠 - 속초시립합창단은 시에서 만들고 운영하였으니 활동이 좀 수월하였고, 그 이전에 활동한 합창단은 단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였으니까 지원이나 행정적 도움이 거의 없어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볼 수 있지요.

사회자 - 음악협회가 등록되기 전까지 교사분들이 속초 음악에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주로 현직 교사분들이었나요? 아니면 퇴직 교사분들이었는지.

심연흠 - 당시 현직 교사분들이었지요.

2000년대 들어서 국제교류 등 다양한 활동 전개

사회자 - 네, 그렇군요. 2000년대로 접어들어

현재까지는 어떤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는지요?

심연흠 - 2000년도에 원영백 선생님이 단장으로 활동하신 ‘설악 청소년 기타 합주단’이 창단되고, 2001년도에 강은희 선생님이 지휘한 ‘설악 엔젤스 합창단’을 들 수 있어요. 원영백 선생님은 강릉으로 나갔고, 현재 따님이 속초에서 ‘원영백 기타 교실’을 운영하며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2001년에 속초 교사분들이 ‘설악 리코더 앙상블’을 만들어 활동하였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선생님의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음악협회가 생기기 전, 즉 태동기에는 음악교사분들이 주축이 되어 소모임 형식으로 활동을 하다가 음협이 생기면서 교사가 아닌 전문 음악인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규모도 커지고 활동도 활발해지고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예총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2004년 강은희 선생님의 ‘설악 엔젤스 합창단’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연을 했는데, 속초와 자매 도시를 맺은 도시들과의 국제교류는 속초예총



속초음악협회 윤여순 부회장(좌), 황길선 감사(우)

재근, 심영섭, 이경아 선생님 등이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대표적인 분들이세요.

사회자 - 그럼, 현재 활동하시는 이분들이 속초 음악 역사에 있어 몇 세대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심연흠 - 3세대 정도로 볼 수 있지요.

분과 소속으로 가신건가요?

심연흠 - 저희 음협이 독립적으로 한거죠. 중국 훈춘도 갔어요. 원래 설악 엔젤스 합창단을 제가 만들어서 강은희 선생님에게 지휘를 맡기고, 제 딸이 반주를 했어요. 둘이 사제 기간이거든요.

사회자 - 네, 그렇군요. 그럼 정기적으로 음악 교류를 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교류가 힘들었겠네요?

이은미 - 올해는 전혀 못했어요. 내년에는 음협 차원이든, 예총 차원이든, 어린이 음악 교류든 이런 국제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해요.

심연흠 - 참, 인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 하자면 임수철 선생님, 3대 음악협회장을 하시고, 전문서적도 많이 내시고요. 원영백 선생님은 앞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김영삼, 이도형, 박

〈버스킹〉, 속초 음악의 강점으로 자리잡아

사회자 - 자, 그럼 화제를 바꾸어서 속초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요? 우선 타 지역에 비해 속초 음악이 지닌 특징, 독특함이나 강점, 예술분야에서 강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심연흠 - 다른 무엇보다 <버스킹>을 꼽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속초가 ‘문화관광도시’이다 보니, 제작년부터 <버스킹>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여순 - 네, 그 점이 특색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속초는 유난히 버스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엑스포 공원을 중심으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요.

심연흠 - 그런데, 이걸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인데 지금 오케스트라가 3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각자 따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음악협회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운영되는 오케스트라는 사설단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그렇고, 음악하는 단체들이 음악협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컨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속초 음악의 또 다른 특징이지요. 지금은 서로 각자 움직인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부족한 인프라 ... 속초음악 발전 위해 속초시 행정 지원 절실

윤여순 -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가장 큰 것이 연습실이 없다는 것.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도 없었지만, 평상시에 연습 장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말에 문화회관 소강당은 거의 비어있잖아요. 이런 곳을 개방해주면 좋겠는데 시 직원들이 나와서 문 열어 주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힘든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이런 장소를 음악인들을 위해 연습 장소로 지원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은미 - 네, 장소로 문화회관 소강당이 좋을 것 같아요. 활짝 개방해주면 안되나요? 그거 사용하려고 신청할 때마다 사무실에 가서 시 직원들에게 거의 사정하다시피 하는데, 안 빌려줘요. 너무 어려워요. 관리 이유, 행사 종류 등을 문제 삼거든요. 너무 심해요.

사회자 - 연습장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윤여순 - 네, 저희처럼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속초에도 많거든요.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정이예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오케스트라를 하려면 팀파니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팀파니 같은 악기는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런데 팀파니 악기가 있음으로써 음악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런 악기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구입해 주셨으면 해요. 웬만한 다른 시에는 이런 악기가 다 있어요. 또, 악기가 커서 공연이나 연습 때마다 트럭에 실어 이동해야 하고,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문화회관 공연장 같은 곳에 상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랑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팀파니가 있어요. 아마 국가에서 지원해준 것 같은데, 렌탈이 안되 할 수 없이 서울에서 한 번에 50만원씩 주고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되면 속초에서 음악 활동하는게 좀 쉬어질텐데 그런 점들이 아쉬워요.

사회자 - 악기와 공간, 시에서의 지원이 아쉽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속초시 이름이나 소속으로 활동하는 곳이 속초시립합창단이 있고, 또 다른 곳이 있나요?

이은미 - 속초시립합창단, 그리고 풍물단 정도가 있어요.

사회자 - 속초시립풍물단이 있군요. 그럼 풍물단도 국악협회 분과로 들어가 있나요?

이은미 - 네, 속초국악협회로 소속이 되지요.

윤여순 - 그런데 국악협회는 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나요?

사회자 - 그렇죠. 시에서 운영하는 조직에다가, 상근이니깐요. 반면에 시립합창단은 시 소속이기는 하지만 비상근이고 하니 좀 어렵겠죠?

이은미 - 네, 그래서 비전공자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연흠 - 윤여순 단장님이 교향악단을 등록을 시키면 돼요. 저도 ‘설악엔젤스’를 처음에는 엔젤스로 그냥 연주를 다니다가 가만 보니 아닌 것 같아 내가 회장을 하면서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소속 설악엔젤스로 가입시켰습니다. 이렇게 음악 단체들을 음악협회로 가입시키는게 어려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미 - 그러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 같아요. 속초음악협회로 들어오세요.

심연흠 - 이번 기회에 윤단장님이 주최하셔서 단장님들끼리 한 번 모이셔서 식사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도 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그 자체가 속초 음악의 발전이죠.

사회자 - 조금 전 말씀을 정리하자면, 속초에는 ‘윈드, 설악, The’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3개가 활동하고 있지만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하여서 어려움이 적지 않고, 음악협회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면 환경이 지금보다는 안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시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타 도시에 비해 너무 열악하다, 시



속초음악협회 이은미 회장

소속이 되거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만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반면에 강점도 존재하는데, 작년부터 활성화된 버스킹으로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많은 향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심연흠 - 우리 속초에 관광객들이 오면, ‘먹고, 보고, 가요’. 거기서 ‘듣는 것’까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초시 행정에서 ‘패러다임(paradigm, 기본적인 인식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속초에 가니까 음악이 너무 좋더라 ... 무슨 요일에 가면 무슨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 ... 요일에 맞춰 우리 갑시다.’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해요.



속초에는 ‘윈드, 설악, The’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3개가 활동하고 있지만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하여서 어려움이 적지 않고, 음악협회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면 환경이 지금보다는 안정적일 수 있다

황길선 - 제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요, ‘속초 사잇길 버스킹’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원연합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음악 급수 대회를 하고, 그 급수 대회에 참가를 한 아이들이 나와서 버스킹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참여도가 아이들이 100명 이상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음악회를 했을 때는 거기서 콩쿨을 하고 음악회를 했는데, 그게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급수 대회에 많이 참가해요. 급수 대회를 마치고 너무 아쉬우니까 버스킹에 많이 참여 하는 거죠. 엄마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우리 속초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음악적 인프라’가 활성화 되

었으면 해요. 또, 정기적으로 음악 공연이 잡혀 있으면 해요. 구체적인 공연 프로그램이 정해져서, 언제 어느 곳에 가면 공연이 있는지 사람들이 미리 알고 계획을 잡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황길선 - 조금 전에 ‘팀파니’ 악기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피아노’가 곳곳에 상시 비치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버스킹’ 장소에도 그렇고요. 서울 같은 곳에는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항상 아쉬웠어요. 저희가 버스킹을 하려 해도 피아노가 없어서 그냥 키보드 가지고 하긴 했는데... 시에서 피아노를 버스킹 장소에 구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외 공연도 많이

열릴 수 있고, 사람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어느 시를 가도 피아노가 야외에 다 비치되어 있는데 속초에는 그게 없어요. 이게 1~2년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한 거예요. 지난 번에 유진박 왔을 때도 야외에 피아노가 있어 너무 좋았거든요.

사회자 - 그렇군요. 그런데, 피아노가 야외에 나와 있으면 그것이 관리가 가능한가요? 비가 오거나 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황길선 - 네, 관리가 가능한가 봐요. 다른 도시에는 야외에 설치되어 운영되니까요.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5월쯤 야외에서 아이들이 공연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관람하시는 분들도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꽃이 이쁘게 피어 있어 그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주고 하면서 좋아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속초, 국제적인 음악도시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며...

심연흠 -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속초에 버스킹이 많아요. 공연이 정례화 되고, 고정적이 되었으면 해요. 이곳은 월, 화... 저 곳은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는 러시아 아이들만, 여기는 한국 아이들만, 여기는 기타,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속초에는 피아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분들이 '거기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 지야' 정해놓고 순회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버스킹하는 것처럼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당번을 정해서,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왔던 사람들은 "야, 정말 속초는 문화관광이구나! 먹고 보는것만 아니라 듣는 것도 있구나!" 저는 유럽 여행을 하면서 아주 좋고 머리에 남는 것이 그거였어요. 그 야외에서 버스킹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또 밤에는 시청에서, 좋지 않은 긴 의자에 앉아서 공연을 봅니다. 매일 저녁 연주해요. 7시부터. 으레 이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맥주들고 그 곳에 가고, 그런 풍경이 기억에 오래남습니다.

우리 속초도 그렇게 되려면 제가 조금 전 이야기 했듯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합니다. 속초 시민들을 위해 인프라를, 음악의 인프라를 바꿔주어야 하겠다, 그러려면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해요. 그러나 조금 전 피아노 문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시의원들하고도 이야기했고 다른 분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진행이 안되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연구하고 해결하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사회자 -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협회 가입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은미 - 자격은 음악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해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꾸준히 하거나 회장단이 특별히 인정한 자에 한해서 준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 음악협회 회장님, 사무국장님, 부회장님이 계신데, 운영이나 활동을 하시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요. 자체 예산과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 있을텐데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적정 예산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요?

이은미 - 시에서 예산 지원은 없어요.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저희 회원 회비가 1년에 5만원이거든요. 저희 음악협회 회원분들이 30여명 정도인데 회비를 다 내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요. 일 년에 한 100만원 정도 가지고, 또 행사 한 번 하고 나면 몇 % 정도는 예측에 회비로 납입해야 하고. 그러면 진짜 저희 회원들 식사 한 끼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

시면 말씀하시죠?

심연흠 - 네, 호주 콘서트 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거 속초에 지을 수 있어요. 저는 평창에 가서 연주회를 보면서도 ‘야! 이게 속초로 와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평창이 산밖에 더 있어요? 산, 아름답죠. 하지만 그건 꾸민거잖아요. 우리는 자연이란 말이죠. 이걸 살리면 숙박시설, 설악동 문제, 속초 경제 등 다 해결되요. 세계적인 콘서트를 여기에다 열고, 평창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설악 콩쿠

이민희 -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음악협회 활동이 줄어든 것이 안타깝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더욱 많은 음악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왕성한 활동할 수 있게되길 바랍니다*

이은미 - *속초지역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하여 지역아동들이 트로트나 k-팝 보다는, 맑고 고운 동요를 불러 우리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 음악교육에 큰 뜻을 두겠습니다*

니 행사 때마다 저희 회원들이 회비 외에 조금씩 걸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사회자 -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실텐데 시간을 내주시고, 무엇보다 귀중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은 향후 다른 유관기관이나 단체들과 자리가 마련된다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은미 -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분 계

르>, 여기에다 열면 세계적인 콘서트를 ... 그러면 러시아 콩쿠르, 유럽 콩쿠르, 그들 못지 않게 되거든요. 국제콩쿠르 가보면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는 아니에요. 아름답기는 하지만 우리 속초만큼 조건이 좋은 데는 그렇게 없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콩쿠르를, 국제 콩쿠르를 여기 설악에다 유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민희 -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음악협회 활동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안타깝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더욱 많은 음악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신임 사무국장이 되었으니 내년에는 이은미 회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을 적극 보필하여 속초음악협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여 속초가 음악도시가 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은미 - 속초와 서울무대를 오가며 활발이 활동하고있는 속초 출신 젊은 음악인들이 예총 음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예총 음악협회 정기연주회와 예총에서 주관한 버스킹 그리고 개인 독주회 등의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솔로 연주자들로 플룻 권예나, 바이올린 김아경, 피아노 김예슬, 타악 유영준, 재즈피아노 이에셀, 작곡&기타 강명근 등 훌륭한 연주자들이 협회에 가입하여 저의 권유로 피아노 트리오팀도 꾸려지고 재즈듀엣팀도 꾸려져 연주자들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지역의 훌륭한 음악 인재들이 연합하여 솔로, 듀엣, 트리오 더 나가 앙상블팀까지 구성되어 우리 회원

들의 연주를 통해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힐링할 수 있는 연주회를 많이 갖게 되길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속초지역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하여 지역아동들이 트로트나 k팝 보다는 맑고 고운 동요를 불러 우리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밝게 자라날수 있도록 아동 음악교육에 큰 뜻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초음악협회의 내년 을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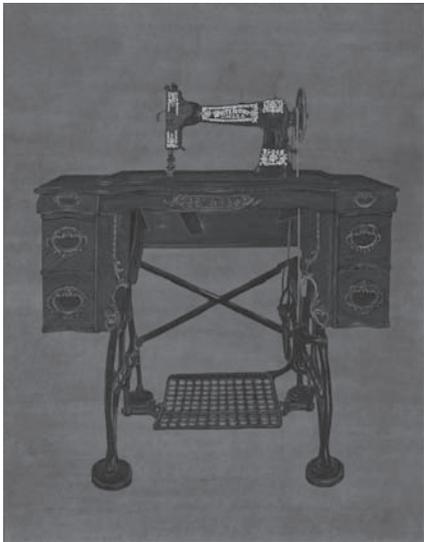
사회자 -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초 시민분들 중에도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도 많으시니까요. 여건이나 시 지원도 점차 좋아지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속초문화

내 푸른 핏줄기는 어디서 왔을까?

지영희

어머니는 재봉하기를 좋아하셨다
 한낮
 어린 나는 재봉틀 소리 들을 때마다
 재봉틀 발판에 내 발을 대고 잠들곤 했다
 심심할 때도 재봉틀 발판 밟으며
 규칙적인 소리에 내 심장을 맞대고 꿈꿨다
 식지 않는 열정이
 세상을 바늘땀처럼 촘촘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어머니가 재봉하실 때마다
 내게로 온 것은 아닐까



내 푸른 핏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91.0 x 116.8 cm •순지에 분채/2017

내 푸른 핏줄기는 어디서 왔을까?



지영희

1994년 [월간 문학]으로 등단
 시집 <사람이 두렵습니다>, <가까운 별 내 안의 새들>
 현재 갈매 동인, 한국문인협회, 강원문인협회 회원, 속초문인협회 지회장

강릉원주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을 수료
 2017신사임당미술대전 우수상 외 각종 공모전 13회 수상
 개인전 2018 되찾은 언어(강릉 시립미술관, 강원진로교육원갤러리)
 단체전 2020 한국가톨릭미술가회창립50주년 기념전 (명동성당갤러리) 외 20회
 현재 신사임당미술대전 추천작가, 강원도미술대전 추천작가
 한국화동질성회, 강원현대한국화회, 화강회, 영동지구가톨릭미술인회,
 해람회, 양지한국화회 회원
 E-mail : jeeyoung1112@naver.com

겨울 비선대에서

권정남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갈매 동인, 영동수필 동인)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렸다. 밤새껏 소리 없이 오는 눈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설렘이나 낭만 같은 의미를 주질 않는다. 그저 생활하는데 불편을 줄 뿐이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잠시 접어 두고 목우재 넘어 눈 쌓인 설악으로 향했다.

산 입구를 들어서면서 부터 권금성을 비롯하여 멀리 눈 쌓인 공룡 능선이 무채색 한 폭의 수묵화로 선뜻 눈에 들어왔다. 대자연이 붓질한 수묵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니 비선대가 나왔다. 계곡에는 흰 봉분 같은 바위들이 숨죽인 채 엎드려있고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푸른 하늘이 선연하게 걸려 있었다. 겨울 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이듯 싸한 냉기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허공에는 여백이 환하게 펼쳐져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처럼 텅 빈 듯 팍 차있는 넉넉한 공간 같은 여백이 있는 사람을 나는 좋아 한다. 여백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품을 줄도 알고 자신을 내어줄 줄도 아는 넉넉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산문山門 밖 세상에서 겨자씨만한 일로 나 자신을 주장하며 타협 할 줄 모르고 살아 왔다. 저만치 비탈에 서있는 나무들이 자신을 몽땅 내주고 나뭇가지 마다 하얀 이팝꽃 같은 눈꽃을 매달고 겸손히 묵례하고 서있다. 고개를 들어 보니 대청봉을 비롯한 흰 산봉우리들이 온몸에 흰 봉대를 감고 우뚝 서 있는 듯 적요했다. 고요의 극지에 서 있는 겨

울 산은 이집트 유적지처럼 신비했으며 삼각형 모양의 산봉우리들은 사진에서 본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느낌을 주었다. 봉우리마다 흰 눈을 덮어쓰고 서있는 나무를 보니 방랑시인 난고 김삿갓 시詩가 떠올랐다.

천황씨가 죽었나 인황씨가 죽었나 // 나무와 청산이 모두 상복을 입었구나
// 밝은 날에 해가 찾아와 조문 한다면 // 짐집마다 처마 끝에 눈물 똑똑 흘리
겠지

시를 읊조리며 미끄러운 산길을 등산화 끈을 조이며 다시 올랐다. 눈썹 속에 발을 담근 채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서있는 물푸레나무, 서어나무, 당단풍나무들이 호명하면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저만치서 나를 바라보며 서있다. 서로 다른 나무들 끼리 가까이도 멀지도 않은 자기들만의 거리를 평생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가도 비바람이 치면 길게 팔을 뻗어 서로 손잡아 주기도 하고 어깨를 끌어안아 주며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준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 적당한 거리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때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변함없는 거리를 유지하며 서 있는 저 눈부시고도 아름다운 간격이야 말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배워야 하는 필요한 간격이 아닐까. 또한 나무는 지조 같은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리고 오로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며 자기 몫의 삶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눈썹길을 오르다가 보니 어느 덧 눈이 하얗게 덮인 비선대에 도착했다. 저만치 하늘을 찌를 듯 서있는 장군봉과 형제봉 그 옆으로 깎아지른 듯 서있는 적벽이 눈에 들어왔다.

비선대에는 눈이 앞이 안보일 정도로 쌓여 너럭바위에 새겨진 ‘飛仙臺’라는 커다란 글자가 보이질 않았다. 날이 맑으면 바위에 새겨진 용지를 품은 듯 꿈틀 거리는 용 같은 ‘飛仙臺’ 세 글자가 뚜렷이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그 글자는 조선 후기 때 윤순尹淳이라는 분이 썼으며 설악산의 대표적인 금석문金石文이라고 했다. 또한 마고선麻姑仙이라는 신선이 비선대飛仙臺 아래 와선대에 누워서 비경을 감상한 후 하늘로 올라갔다는 데서 비선대 명칭이 유래 되었다고 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설악산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설악을 주제로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곤 한다. 설악에서 많은 시詩를 남긴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은 그의 저서 『설악일기雪岳日記』에 “瓊臺俯金潭 右扇排靑峰 融時備衆妙 豈惟勢奇壯(경대 같은 맑은 물 굽어보니 / 부채 같은 청봉이 그 곳에 펼쳐졌네 / 이곳이 생길 때에 묘리妙理를 갖추었던가 / 그 세勢가 어찌하여 이리도 기장한가)”라고 하여 비선대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시로 읊었다. 또한 정미년 (1787년) 양양 군수로 있던 김몽화金夢華도 『유설악록遊雪嶽錄』에서 설악산 비선대 주변 경관을 극찬하는 글을 썼다고 한다. 비선대 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금강굴이다. 금강굴은 장군봉 중간 지점에 위치한 자연 굴로 원효대사가 수도 하셨다는 전설과 함께 원효대사의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에서 따온 금강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전한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많은 예술가들이 자연을 시로 읊고 그림으로 그리는 서기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난 여름 혼자서 비선대에 오른 적이 있다. 장군봉과 형제봉 그 옆 적벽 꼭대기에 거미처럼 대롱대롱 밧줄에 매달려있던 두 남녀가 생각이 난다. 천 길 낭떠러지 아래 시퍼런 물이 마치 그들을 삼킬 듯 아귀처럼 입 벌리고 있는데 그들은 암벽을 타는가 싶더니 금세 적벽 정상에서 낙하산처럼 날개를 펼치더니 거대한 부나방처럼 허공에 떠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그 날 밤 쏟아지는 별과 달을 가슴에 안고 허공에서 잠을 잔다고 했다. 날개를 편 채 허공에서 맞이하는 남녀의 낭만적인 밤은 짜릿한 스릴과 함께 고독한 전율을 느꼈으리라. 그렇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목표한 정상이 있다. 어떻게 도전 하느냐가 관건이다. 암벽타기 그 푸른 이상향을 도달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에 정면으로 맞서며 오르는 것이다. 가슴 떨리는 희열, 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일 것이다.

문득 자신의 목표를 위해 몇 년째 도전하고 있는 딸이 생각났다. 다섯 평도 안 되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협소한 공간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을 딸의 피나는 고독이 울컥 가슴에 와 닿았다. 언젠가는 푸른 이상을 향해 날개 펼칠 날이 있겠지 그 무한한 비상飛翔, 떨리는 희열을 위해 이 밤도 자신을 스스로 담금질 하고 있겠지.

산바람이 천불동 쪽에서 허공을 차며 내려오는가 싶더니 잠깐 사이 산 전체가 요동치듯 흔들렸다. 하지만 눈 쌓인 비선대 너럭바위는 설원雪原처럼 적요하고 산비탈 계곡은 몇 필 흰 광목을 펼쳐 놓은 듯 고요한 침잠의 세계일 뿐 돌아보니, 쌓인 눈 때문에 어디에도 비선대는 없었다. 비어있는 듯 하면서도 가득 채워져 있는 하얀 여백, 그 막막한 화두話頭 空의 세계 일 뿐이었다. 그저 영원永遠 같은 절체절명의 고독 앞에서 잠시 무릎을 꿇고 싶었다.

겨울 비선대에 올라 / 비선대를 보지 못했네 / 바위에 새겨졌던 飛자는 / 어
디론가 날아 가버리고 / 눈 위에 새 발자국만 남아있네 / 얼음장 밑으로 흐르
는 물소리 / 산을 흔드는 바람소리 / 허공으로 날아간 飛자는 / 산비탈 겨울나
무 가지마다 / 話頭가 되어 / 바람 부는 쪽으로 흔들리며 / 매달려있었네.

권정남시 「겨울 비선대에서」

몇 해 전 가곡으로 불리지던 내詩 ‘겨울 비선대’를 작곡가 신귀복 선생님이
곡을 부치고 소프라노 김신자 님이 영산 홀에서 불렀다. 그 순간 나는 캄캄한
객석에서 그 노래가 무대에서 불려 질 때 눈을 감고 눈 쌓인 겨울 비선대를 생
각했다. 그때 회오리치며 산을 흔들던 겨울 설악 산바람이 객석에 있는 나를
휘감았었다.

‘겨울 비선대’ 그 고요의 극지極地에서 얼음장 아래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저만치 산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산짐승들에
게 줄 먹이를 뿌려주던 헬리콥터가 천천히 마등령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 수필집 『겨울 비선대에서』 게재된 글



권정남

1987년 『시와 의식』, 2016년 『현대수필』 겨울 호 등단
시집 『사이프러스 나무아래서다』 외 4권이 있으며
수필집으로 『겨울 비선대에서』가 있음
수상으로는 ‘강원문학상’ ‘강원여성문학상’ 외 다수 수상
한국문인협회, 강원문인협회 및 속초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2020년 속초문화원 임원명단

구분	성명	경력	비고
원장	김계남	속초문화원장	
부원장	한명옥	전통타악연구원 대표	
이사	김은미	검찰청 법사량위원회 위원	
이사	김주철	교차로 신문사 대표	
이사	김태형	속초 프로스펙스 대표	
이사	문은희	속초고성양양 여성경제인연합회장 신화식품 대표	
이사	백영철	전)속초축제위원회 이사장	
이사	신홍식	전)해양경찰서장	
이사	유수경	강원대 경영대학원 설백회 회장	
이사	유종완	설악봉사회 회장	
이사	이정용	생활한복연구가	
이사	장용근	속초축제위원회 이사	
이사	정봉재	(사)한국예총 속초지회장	
이사	정성수	아트플랫폼갯배 운영, 아사모 회장	
이사	주경범	(주)삼정냉동 대표	
이사	지태수	갯마당 대표	
이사	최원복	사단법인 스포츠협회 이사	
이사	최춘미	생활한복 연구가	
이사	탁명원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이사	탁홍순	전)영랑동장	
이사	한춘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	
감사	허우린	전)속초시사회복지협회장	
감사	이상호	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원혜택

1. 향토사안내서, 속초문화지 등 속초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들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발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DVD, 도서, 음반,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회비 : 연 5만원

문의 : TEL 632-1231 / FAX 632-1241 / www.sokcho-cultur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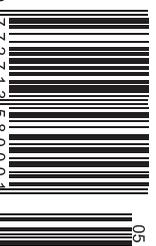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155(연랑동)

Tel. 033 632 1231, 639 2439 Fax. 033 632 1241

www.sokcho-culture.com

비매물/무료



9 772713 580001
ISSN 2713-5802

05